

해양의 보전과 이용을 선도하는
해양환경 국민 플랫폼 기관

2020/2021 해양환경공단 ESG경영보고서

KOEM 해양환경공단



KOEM Tel. 02-3498-8753 Fax. 02-3462-7707
해양환경공단 (05718)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본 보고서는 디자인,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디자인시 별색 지양, 인쇄공정시 공기를 잉크사용, 코팅 공정을 지양하였습니다.



Cleaner Ocean for Happier Earth

2020/2021 해양환경공단 ESG경영보고서

KOEM 해양환경공단

ABOUT THIS REPORT

해양환경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귀기울이기 위해 2012년 첫 보고서 발간 이래 매년 ESG경영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ESG경영을 포함한 비재무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를 한 권에 통합하여 보고함으로써 공단 이해관계자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와 함께 공단의 경영현황과 기업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보고기간 및 범위

보고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파악되는 경우에는 2021년의 활동 성과를 담았습니다. 정량적인 성과의 경우 추세 파악을 위해 최근 3개년도 데이터를 기재하였습니다. 연간 변화가 있는 데이터는 회계결산일(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고, 별도 데이터 수집 기간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해양환경공단의 본사를 비롯하여 지사를 포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일부 제외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보고 원칙

본 보고서는 ESG경영 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국제 지속가능경영보고 지침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 기준(Core Option)을 준수하였으며, 유엔 글로벌 콤팩트 원칙과 ISO 26000의 주요 아젠다, TCFD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재무성과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K-IFRS)에 따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보고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았으며 그 결과는 검증의견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추가 정보

해양환경공단의 ESG경영보고서는 홈페이지 (<https://www.koem.or.kr/>)를 통해서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해양환경공단

(05718)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ESG경영처

전화 02-3498-8753

FAX 02-3462-7707

이메일 mhpark@koem.or.kr

홈페이지 <https://koem.or.kr>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koemp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EMpr>

본 보고서는 독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관련 웹사이트 및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PDF로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04 CEO Message

06 2020/2021 KOEM ESG/ Sustainability Highlights

08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with KOEM

- 10 기관 소개
- 20 KOEM 2030 비전과 전략
- 22 사람중심, KOEM 뉴딜
- 24 KOEM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28 KOEM ESG경영
- 30 KOEM ESG경영 핵심이슈

32 청정한 바다, 함께하는 해양환경, 클린 거버넌스 선도 with KOEM

ESG Commitment 1 : 깨끗한 바다(E)

- 35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
- 40 미래를 대비하는 해양오염사고 예방

ESG Commitment 2 : 상생의 바다(S)

- 47 해양사업분야 지속가능발전 가치 창출
- 48 사람중심 안전경영
- 51 해양환경교육 및 국제협력
- 52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56 사람이 함께 발전하는 인재중심경영
- 57 행복한 조직문화 구축
- 58 인권존중문화 대내외 확산
- 61 해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반성장
- 6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ESG Commitment 3 : 풍요로운 바다(G)

- 65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배구조
- 67 청렴한 KOEM으로 재도약하는 윤리경영
- 71 모두가 안심하는 리스크 관리

72 APPENDIX

- 74 ESG Data Center
- 80 제 3자 검증의견서
- 82 GRI Standards Index
- 84 수상 및 인증실적
- 86 가입단체 현황 및 UNGC 10대 원칙
- 87 독자 설문지

COVER STORY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지구의 모습으로 해양환경공단의 아이덴티티와 행복한 국민을 위한 의지를 나타냄.



CEO Message

“우리 사회와 환경을 더불어 생각하며
해양의 보전과 이용을 선도하는
해양환경 국민 플랫폼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을 사랑해 주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은 바다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국민들을 위하여
지난 20년 간 바다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공단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
보호구역 지정·관리, 해양오염방제,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
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단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바다를 보호하고,
혁신과 더불어 감동을 주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적극적으로
ESG경영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ESG경영
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되었고,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러한 흐름을 선도해 온
공단은 고유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리더십을 소중히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해양의 보전과 이용을 선도하는 해양환경 국민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차별화된 해양환경 분야 전문역량과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
하였습니다. 공단이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에는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의 다짐들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KOEM은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및 복원, 친환경 골재채취단지 관리,
항만지역 대기질 관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해상풍력 사업
등 그린 뉴딜을 위한 친환경 신규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해안가 쓰레기 모니터링과 대국민 인식
증진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KOEM은 그동안 축적한 방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출유 확산 예측
시스템을 비롯한 최선의 방제 기술과 긴밀한 어촌계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스마트 방제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침몰선박 및 장기계류·방치선박에
대한 현장조사와 잔존유 제거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소형어선
선저폐수 기름여과장치의 현장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양
재난대응을 위한 5천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인 엔담호 건조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민의 해양 이용·향유를 증진하겠습니다.

KOEM은 바다가 탄소 중립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부터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을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양환경부문 온실가스 배출 대응 연구활동을 가속화하며 해양분야
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환경
위기 극복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갯벌복원사업을 확대하고,
보유한 선박을 친환경 LNG 선박으로 대체하여 탄소 배출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람 중심 안전·혁신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KOEM은 안전우선·열린혁신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전담
조직을 격상하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해양방사능
모니터링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안전 프로세스를 면밀하게 점검하고자 매주 안전점검회의체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가 함께 공동으로 ESG경영을 선언
하였으며,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ESG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친환경 경영, 윤리·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누구나 인정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대표 ESG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ESG경영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을 넘어 必환경이 필수인 시대를 맞아
해양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국민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

한기준

2020/2021 KOEM ESG/Sustainability Highlights

기획재정부 '안전관리 혁신기관' 선정

2021년 6월 공단은 안전관리팀을 안전정책실로 격상하고, 전담인력과 예산을 충원하며 안전관리 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한 노사공동 안전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경영진 현장 안전 점검 확대 등 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2021년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등급제 중간평가에서 '안전 관리 혁신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반려해변제도 운영

공단은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려해변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반려해변제도란 특정 해변을 기업·단체·학교 등이 맡아 자신이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해변입양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제주지역 3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20개의 해변을 23개 기관이 반려해변으로 입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5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

공단은 경영활동에서 윤리·인권경영을 기본적인 가치로 삼고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5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 2년 연속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을 통해 윤리·인권경영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청렴윤리·인권존중 문화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규범·제도 등 내부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효과성 진단과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3년 연속 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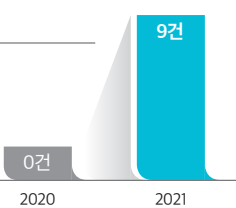
공단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기관이라는 비전 하에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개 어촌체험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벽화봉사활동 지원, 지역 연안 정화활동 등 4가지 테마 12개 신규과제 수행으로 지역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관상 및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3년 연속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협업으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공단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해양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협력이익·성과공유제를 통한 해양환경 장비를 신규 개발하는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납품대금이 하도급업체까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를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구매상담회 및 전시회 부스 공동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은 현장 니즈

중심의 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해양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



지역 맞춤형 갯벌생태계 복원

갯벌복원사업이 해양수산분야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공단은 환경위기 극복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갯벌 복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척 등 산업화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고 자정능력이 약화된 지역을 우선 복원대상으로 선정 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서산 웅도, 신안 암태·추포도, 순천 화포해역 등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 선포식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공단은 2017년부터 국내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 능력을 파악하고 해양 온실가스 인벤토리 집입을 위한 연구를 주관해왔습니다. 2050 해양수산부문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연안습지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한 국가 블루카본 모니터링과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해양분야 온실 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골재채취단지 관리

공단은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역사회의 우려에 따라 해양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골재채취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어종의 산란기를 고려한 골재채취 금지기간 설정, 저서생태계 보호를 위한 채취깊이 제한, 채취 단지 인근해역 부유사 농도 모니터링 등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등 친환경 골재채취단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 추진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해양사고로 침몰한 선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침몰선박의 위해도도를 평가·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우리나라 최초 국내 순수 기술력으로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작업을 완수한 이래로 본격적인 잔존유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3척에 대한 잔존유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LNG 선박 건조

공단은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해 친환경 LNG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LNG 방제선 기반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통해 항만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박 엔진기관에도 친환경 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대형방제선 엔진 기관에서 방출하는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with KOEM



10
기관 소개

20
KOEM 2030 비전과 전략

22
사람중심, KOEM 뉴딜

24
KOEM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28
KOEM ESG경영

30
KOEM ESG경영 핵심이슈

기관 소개

기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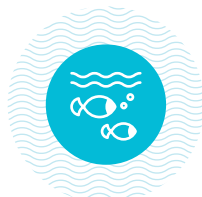
해양환경공단은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해양환경 관리법 제96조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 방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해양오염방제,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해양환경 수호, 사람중심 안전·혁신 경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해양환경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해양환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강국을 실현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해양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관명	해양환경공단	기관장	한기준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설립일	2008년 1월 21일
임직원 수	728명(정원)	매출액	126,923백만원(2020년 기준)
본사 위치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주요 사업



해양환경 보전사업



해양오염 방제사업



해양사업



교육·연구개발



국제협력

주요연혁



조직 구성

해양환경공단은 안전경영본부, 해양보전본부, 해양방제본부, 해양사업본부의 4개 본부와 기획조정실, 감사실, 해양환경교육원, 해양환경조사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단은 주요 항만에 위치한 12개 지사 및 13개 사업소를 통해 각 지역의 고객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 이사 4명, 직원 724명으로 총 728명이며, 비상임이사 5명, 비상임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



해양환경 보전사업

3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바다는 우리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소중한 해양자원의 보고입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이러한 바다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침적폐기물 및 해양부유쓰레기 수거, 해양생태계 복원,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갯벌생태계 복원,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보다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영역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오염퇴적물 정화	해양부유쓰레기 수거
선박폐유 수거·처리	해양환경 모니터링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갯벌생태계 복원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정보포털 운영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조사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운영		



주요 성과

<div>해양폐기물 수거량 달성도</div> <div>101.3%</div> <div>목표 8,527톤 실적 8,640톤</div>	<div>해양생태계 보전지수 달성도</div> <div>100.0%</div> <div>목표 3.086점 실적 3.087점</div>	<div>협력기반 해양생물 관리 지수 달성도</div> <div>103.0%</div> <div>목표 11.16점 실적 11.50점</div>
---	--	---

해양오염 방제사업

해양에서는 크고 작은 오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사회·환경 부문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유사시 24시간 신속한 방제를 위해 선진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신속한 대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영역

24시간 방제 대응태세 구축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침몰선박 유류오염 관리

방제기술 연구·개발



주요 성과



해양사업

해양환경공단은 보유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항만의 공공재 기능유지와 공적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항만에 예선을 운영함으로써 항만 기능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해양치유사업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영역

항만예선사업

해양치유사업

주요 성과



목표	223건
실적	282건



목표	68건
실적	68건

교육·연구개발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자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환경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를 건강하게 만드는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영역

해양환경분야 전문가 교육

대국민 해양환경교육

연구개발

찾아가는 강사단 교육 만족도

목표
91.4점실적
93.2점

→ 101.9% 달성



찾아가는 해양환경 강사단



해양환경 이동교실



해사고 학생 대상 전문방재교육

국제협력

공단은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해양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 개도국에 대한 해양환경교육 및 선진기술 전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영역

동아시아 해양환경 협력 및 국제 방제 네트워크 강화

해양환경 국제교육 및 개도국 지원 사업



캄보디아 공무원 연수



베트남 KOICA 사업 착수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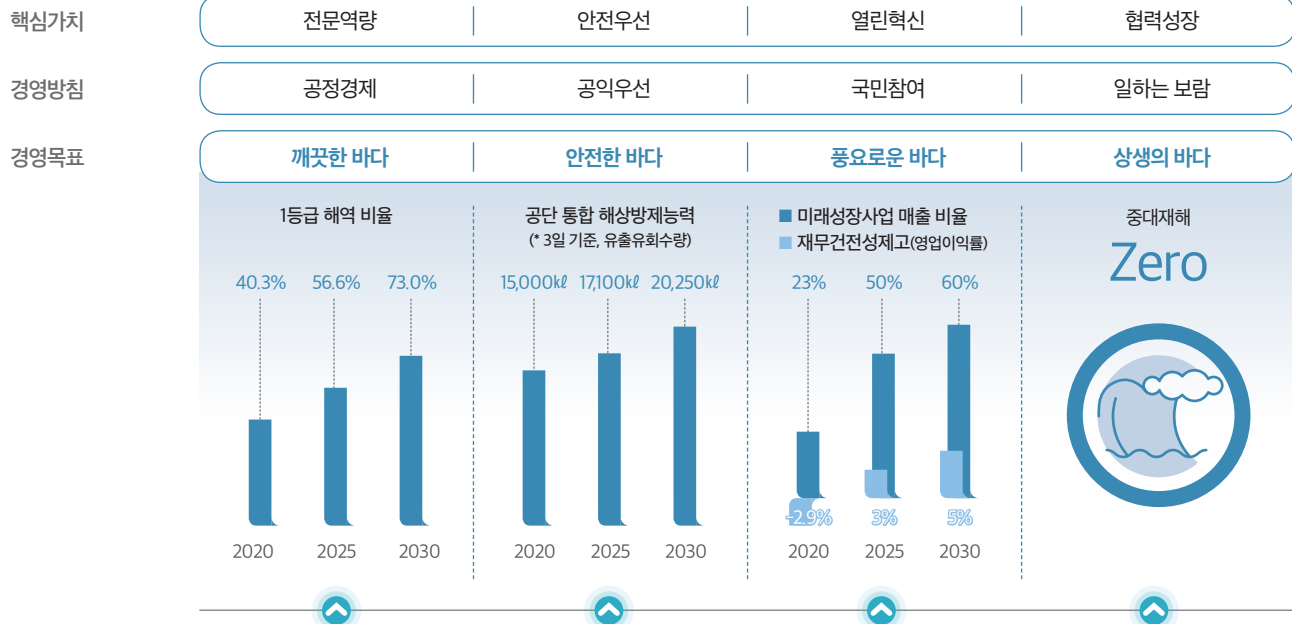
25th cobsea IGM

KOEM 2030 비전과 전략

해양환경공단은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대내·외 경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도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영비전과 핵심가치를 재정립 하였습니다. '해양의 보전과 이용을 선도하는 해양환경 국민 플랫폼

기관'을 주요 비전으로 4대 핵심가치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12대 전략목표 및 과제 도출을 통해 국민·지역사회·협력사·임직원 등 각 이해관계자를 위한 핵심가치를 실현하여 공공기관 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KOEM Vision 2030



전략목표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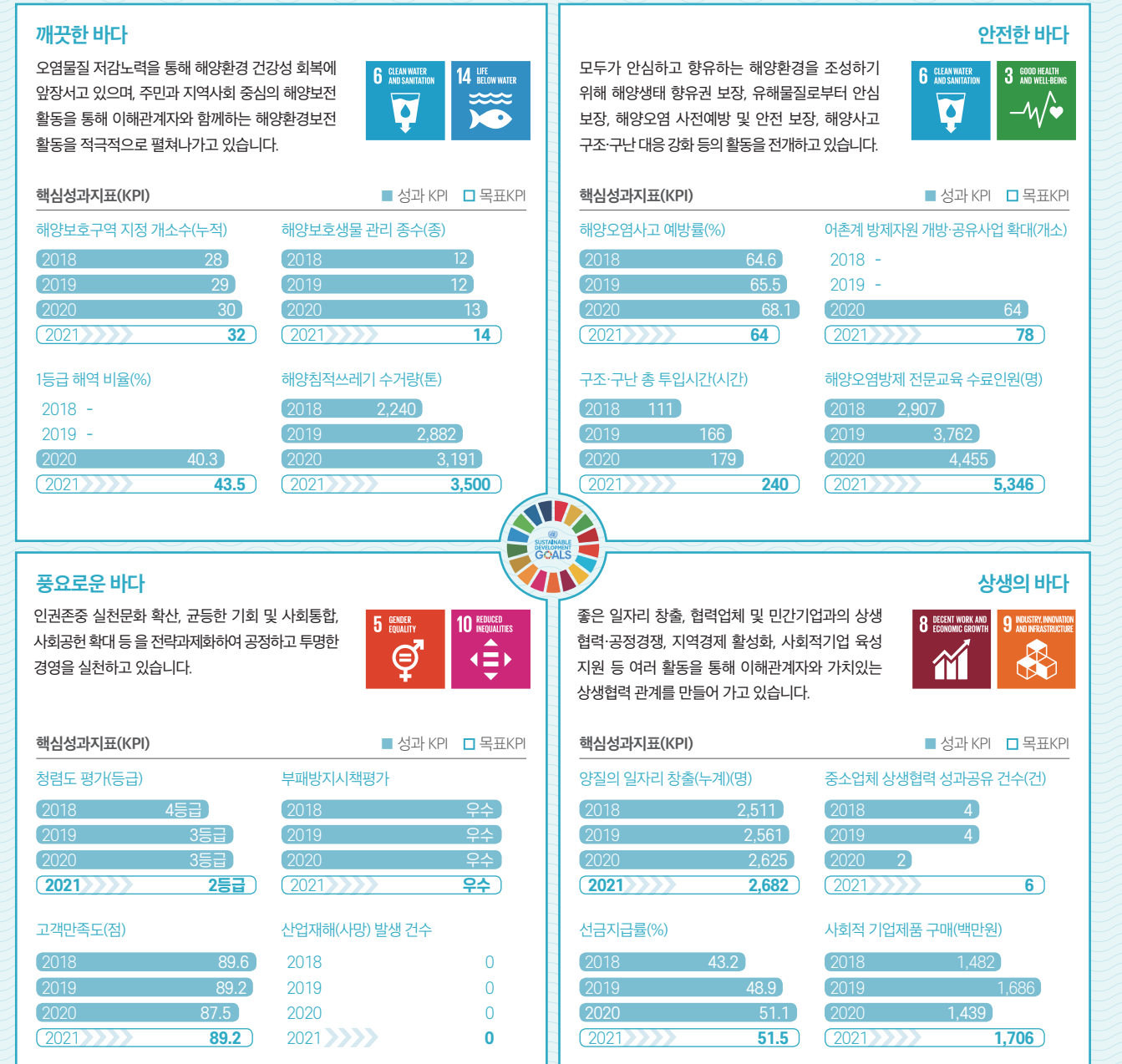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안전한 해양환경 수호	국민의 해양 이용·향유증진	사람중심 안전·혁신경영
1. 해양환경 통합 Solution 제공 2. 해양폐기물 선순환 체계 구축 3. 해양환경 국민참여 강화	4. SMART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 5. 협력적 해양오염 예방·대응 체계화 6. 해양사업 공공성 강화	7. 해양환경 이용·향유 자원화 확대 8. 해양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9.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보	10. 상생협력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11.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12. 투명한 경영으로 공정한 기회 보장

UN SDGs를 기반으로 한 ESG경영 전략과의 통합

해양환경공단의 경영 전략은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고 ESG경영의 실천을 위해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제시 하는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UN SDGs 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문제, 경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입니다. 공단의 경영 활동과 이로 인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 성과는 전지구적 지속가능발전예 기여하고 있으며, 세부 전략과제와 핵심성과지표 등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4대 전략방향



사람중심, KOEM 뉴딜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신속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환경공단은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한국판 뉴딜’의 정책 주요 분야 중 직·간접적으로 공단에 적용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여 ‘디지털 뉴딜’ 9개 과제, ‘그린 뉴딜’ 13개 과제, ‘안전망 강화 뉴딜’ 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KOEM 뉴딜 추진 조직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OEM 뉴딜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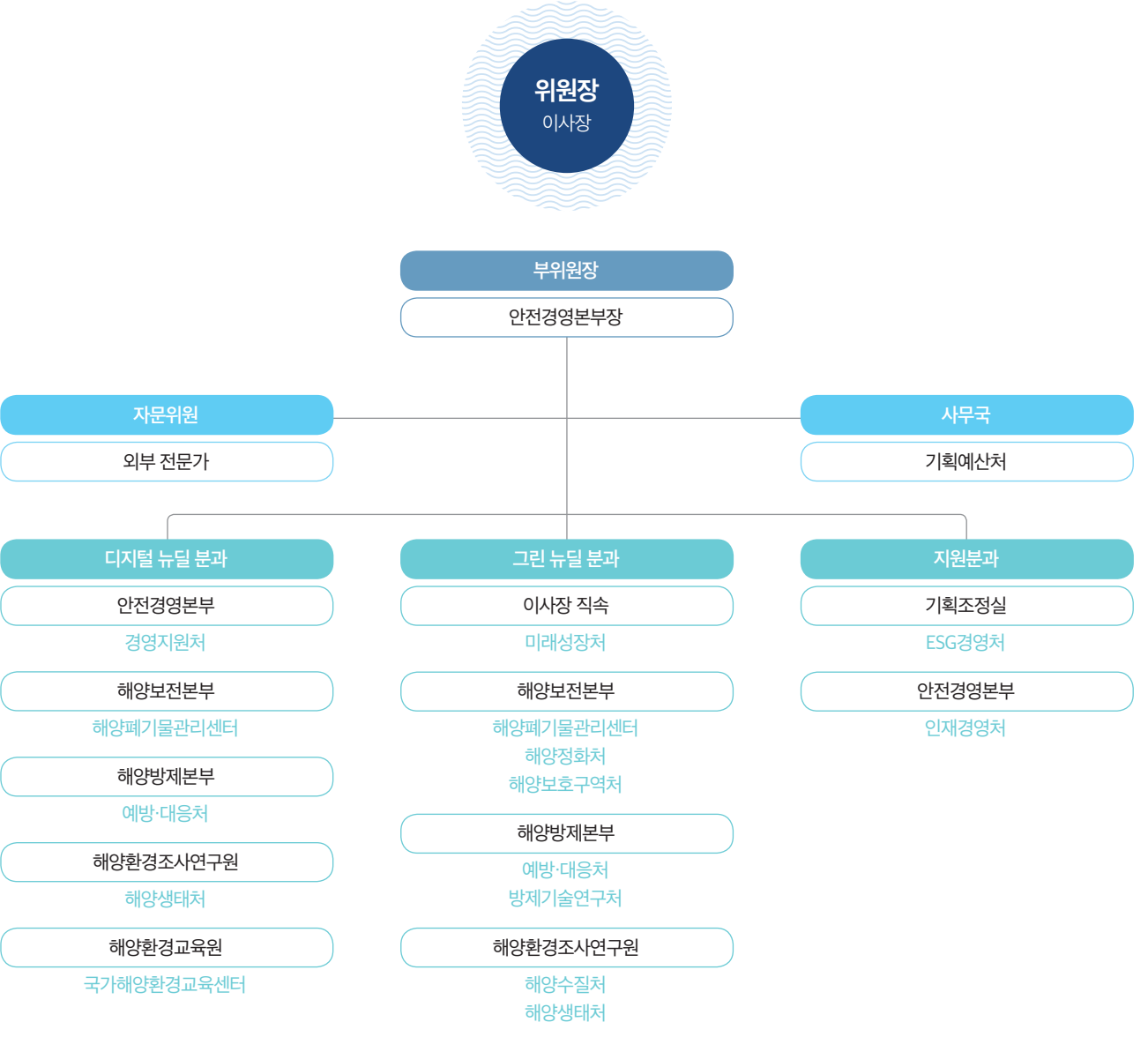


KOEM 뉴딜 추진 조직

해양환경공단은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KOEM 뉴딜 추진을 위해,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KOEM 뉴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뉴딜별 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KOEM 뉴딜 추진위원회는 공단 뉴딜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발전 방안을

제안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OEM 뉴딜 전략 수립에 대한 방향 설정과 차별화된 실행과제 발굴·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도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KOEM 뉴딜 추진 조직도



KOEM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해양환경공단은 다원화된 이해관계자와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가치창출, 가치발전, 가치영향, 가치소비의 4가지 유형별 소통채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특성 및 관심사항에 따른 핵심니즈를 도출하고 차별화된 소통전략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특성별 효과적인 소통을 통한 성과

해양환경공단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이해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소통을 진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의 전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해양환경공단에게 묻는다.

해양환경공단 ESG경영을 위한 중요한 요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허남기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서기관님



이종명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연구소장님



공단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ESG경영 확산에 따라 환경 분야로 기업 투자자금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은 투자 활성화 유치를 위한 투자대상 발굴에 목표를 두고, 해양환경단체 같은 사업수행자와의 매칭을 통해 해양환경공단이 중심이 되어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업 및 지자체, 일반국민이 탄소중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의 지원이 증대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ESG 확산이 전제로 국민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사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국민 해양환경교육을 강화하거나 인식전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공단의 친환경선박 전환 부분이나 자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의 부분이 화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다루는 해양환경공단의 전문분야는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정책 과제 발굴과 그에 따른 실현, 안전사고 예방, 민간해양환경단체와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더욱 많은 역량 강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해양환경 보전

해양환경공단은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 사업을 책임지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바다와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임직원이 모두 주요 이점으로 인식하고 있고, 사업 추진에서 '환경 보전'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해양환경공단의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모토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직원의 교육 훈련 투자 또한 환경 가치 추구 측면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본질적인 환경 관리 발전에 기여하는 이해와 공감, 존중의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은 이윤보다 ESG, SDGs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높게 추구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공단의 존재의 이유 자체가 해양환경 관리인 만큼 환경 관련 투자 및 지출의 확대·효율화가 극대화 된다면 ESG경영을 실현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김동령

해양환경공단 노동조합위원장님



김상한

인천해사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효진

지오시스템리서치 이사님



노동협력과 직원소통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을 관리 및 모니터링 하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와 예방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때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실행이 높지만, 자연현상을 막지 못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연재해 현상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안고가야 하는 과제이지만, 해양오염 사고 같은 부분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수립한다면 ESG경영 발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단은 전체적으로 조직이 밝고 활동성이 많은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으로서 같이 조직을 생각하고 있기에 공단의 조직이 더욱 커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분야 지출 및 투자 유치가 함께 따라와야 할 것이며 직장 안전 및 보건 노동, 지역 사회 공헌 활동 등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부분이 부각되어 표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공단의 사회공헌

해양환경공단의 미래 해양인재 양성과 연계되어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여받고, 진로체험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는 인천해사고등학교 교장 김상한 입니다. 공단은 학생들에게 특강과 심도 있는 교육을 실행하고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인재를 보유하며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 부분에서 사회적 가치와 연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양환경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진출해야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환경에 대한 이슈가 점점 더 화두가 되고 있기에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노고가 많이 느껴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바다를 통한 사회적 가치와 부를 해양환경공단의 ESG경영을 통해 증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박과 육상 교통수단의 연료유가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고 온실가스 국제 기준에 따른 부합 등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도 하는 부분들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인 뿐만이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비취지기를 바라며,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상생기반 동반성장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며 그에 관련된 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성장력 또한 국내 해양환경 분야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함께 하는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수 많은 협력회사와의 협력이 있기에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기술개발·R&D 확대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성장의 중요성은 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노동과 인권의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단 내·외부적으로 공단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공통의 목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해양 미세 플라스틱 등의 환경 이슈와 산재 사망사고 등의 안전관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SG경영 관점에서 공단 내에서 이뤄지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모범적인 운영과 성과 달성을 위해 협력함과 동시에 노동·인권 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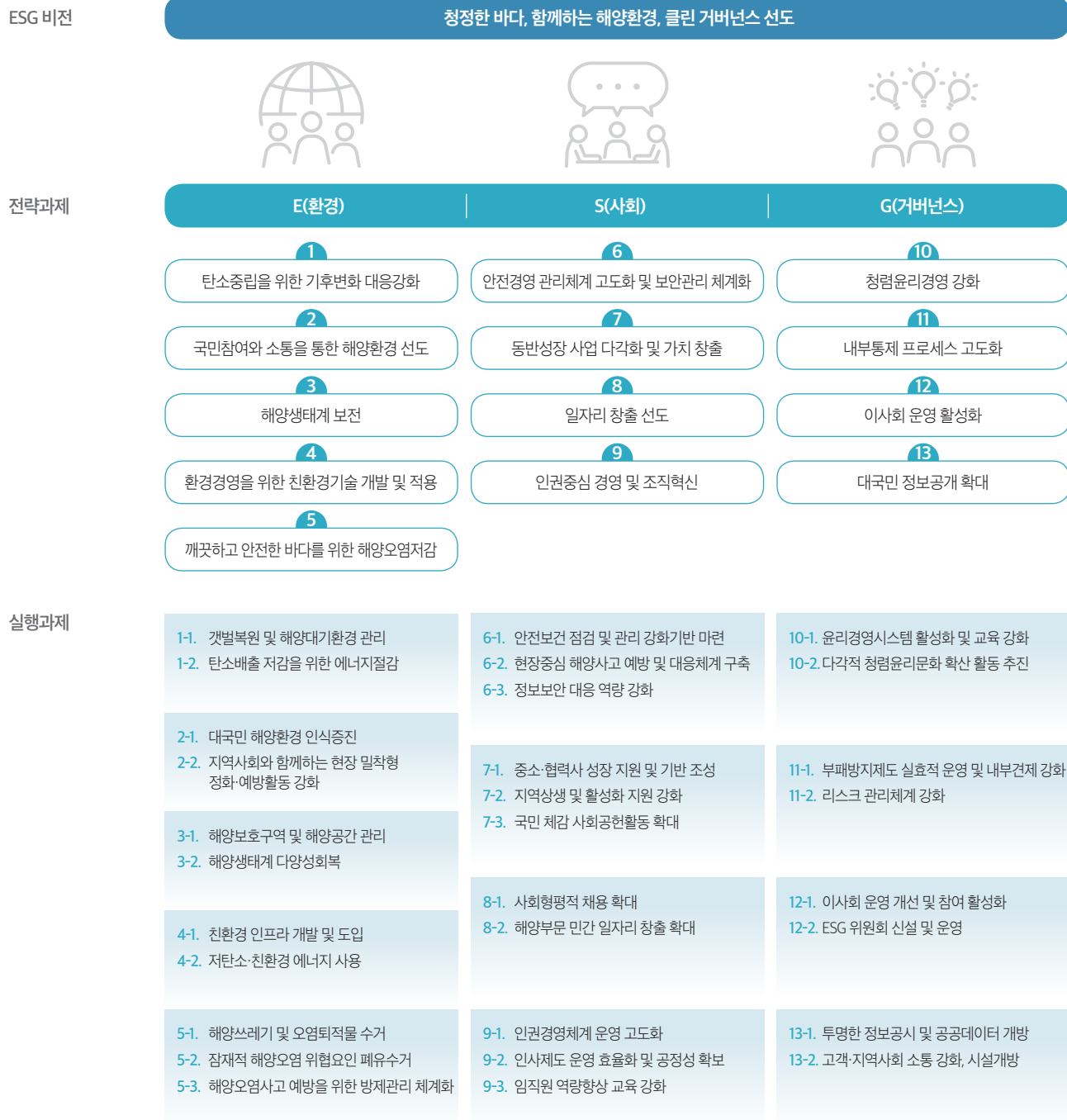
KOEM ESG경영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추진 전략

해양환경공단은 대내·외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중장기 경영 목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도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ESG경영비전과 핵심가치를 정립하였습니다.

3대 전략방향과 3단계의 추진 로드맵을 근간으로 고객·사회·임직원 등 각 이해관계자를 위한 핵심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가치 향상과 함께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KOEM ESG경영체계 전략체계도



ESG 추진 체계 및 조직

해양환경공단은 글로벌 선진기업 수준의 ESG경영 실행을 지속가능 경영의 목표로 정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ESG경영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ESG 추진을 위하여 전원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ESG 위원회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ESG경영추진단을 신설하여 ESG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추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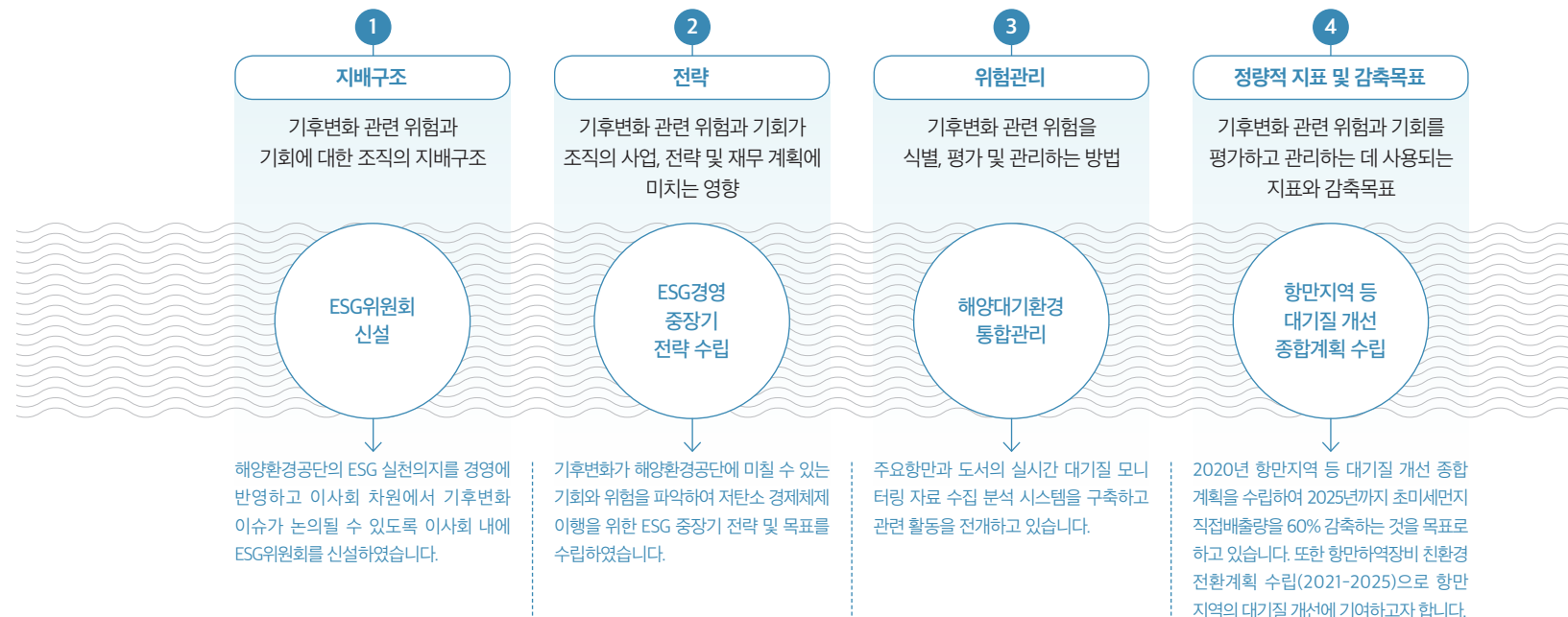


ESG 추진 방향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의 보전과 이용을 선도하는 해양환경 국민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의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ESG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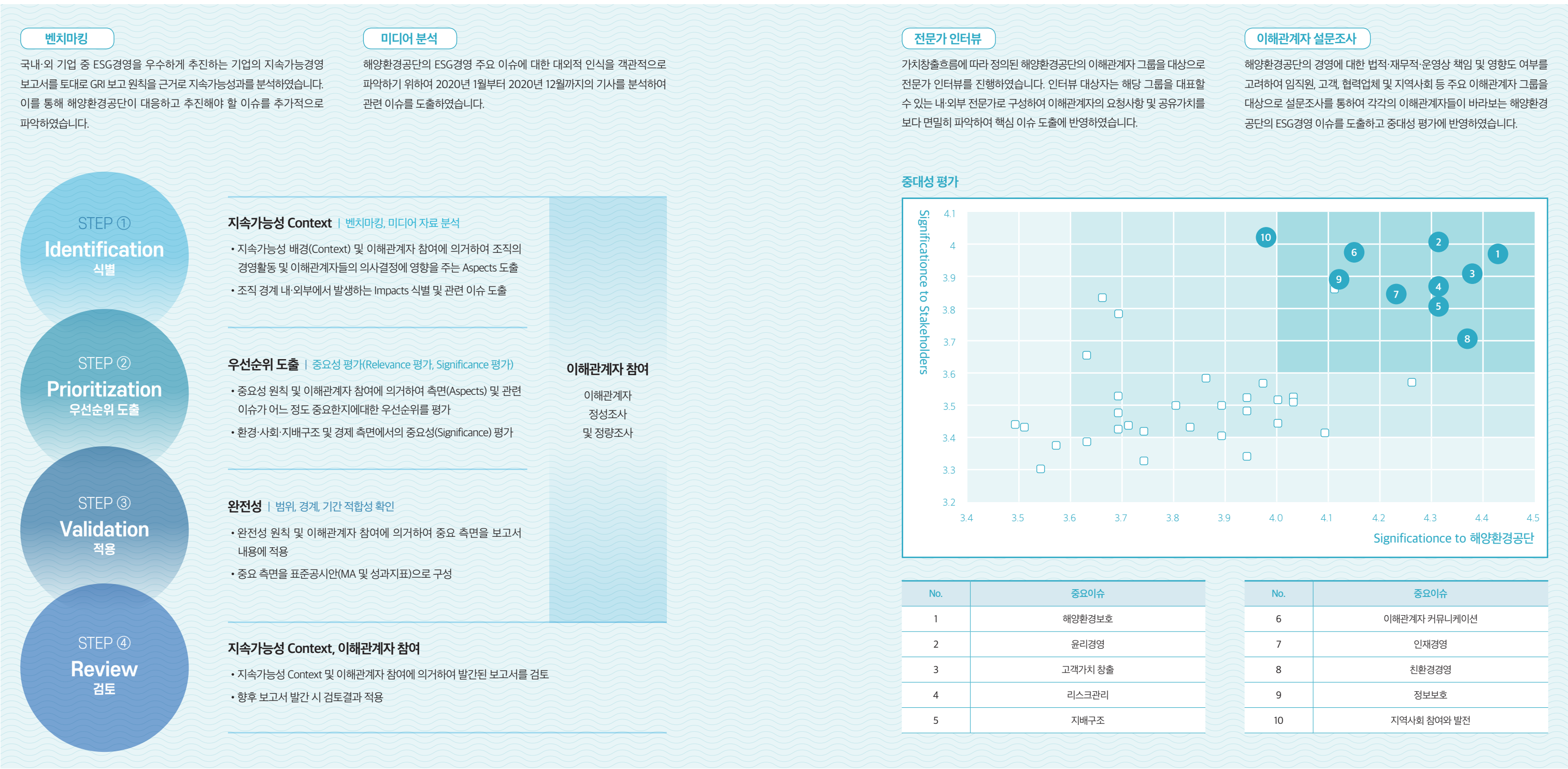
관점에서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출발한 공단의 ESG경영은 사회적 책임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TCFD Guideline 대응 활동



KOEM ESG경영 핵심이슈

해양환경공단은 회사 운영 전반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의 이슈들을 폭넓게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중요한 이슈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 및 보고하기 위해 GRI와 ISO 26000에서 권고하는 중대성 평가 방법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청정한 바다, 함께하는 해양환경, 클린 거버넌스 선도

with KOEM



34

ESG Commitment 1 : 깨끗한 바다(E)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
미래를 대비하는 해양오염사고 예방

46

ESG Commitment 2 : 상생의 바다(S)

해양사업분야 지속가능발전 가치 창출
사람중심 안전경영
해양환경교육 및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람이 함께 발전하는 인재중심경영
행복한 조직문화 구축
인권존중문화 대내외 확산
해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반성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64

ESG Commitment 3 : 풍요로운 바다(G)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배구조
청렴한 KOEM으로 재도약하는 윤리경영
모두가 안심하는 리스크 관리



해양은 생명의 기원이자 인류의 삶의 중요한 터전입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보전과 개선, 방제, 해양사업, 국제협력, 교육 등 해양환경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만드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양의 무한한 잠재가치를 발굴하여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해양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KOEM'S APPROACH

해양환경공단은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기회로 삼고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와 지속적인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위기에도 해양환경 조사 및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오염물질 수거활동과 해양환경정보 제공 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과 함께 풍요로운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 PERFORMANCE

61.7

('20년 목표 58.6)

해양생태계
보전지수

60.9%

('20년 목표 70.91%)

특별관리해역
수질

68.1%

('20년 목표 64.0%)

해양오염사고
예방률

342억원

('20년 목표 28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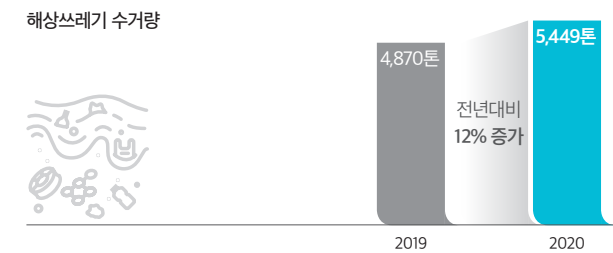
미래성장
매출액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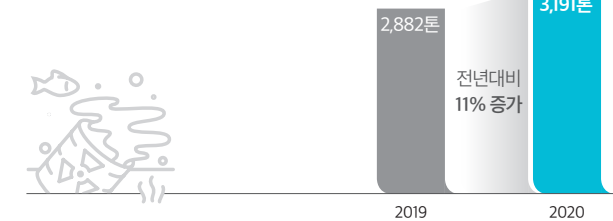
해양 폐기물 수거

기업의 환경보호 노력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해양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폐기물의 발생부터 수거, 처리까지 전주기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해양 폐기물 수거 활동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부유하는 해양부유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저수심 해역 등 순찰 사각지대는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폐기물 대응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다 속 침적된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한 2021~2025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020년 해양침적 쓰레기 총 3,191톤을 수거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11% 증가된 수치입니다. 또한 공단은 수거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청향선을 친환경 LNG 연료 추진선박으로 대체하여 수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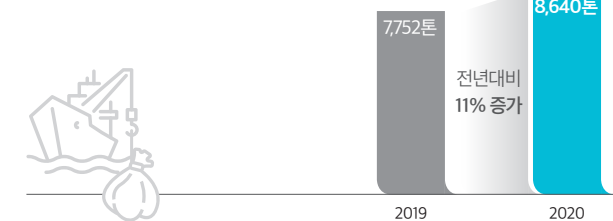
해양폐기물 수거량



침적쓰레기 수거량



해양폐기물 총 수거량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

해양 미세플라스틱 입자로 바다 먹거리 안전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공단은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국연안 7개 정점에서 시범 조사를 시작하여 2020년에는 해수 뿐만 아니라 지표생물, 해저 퇴적물, 해변으로 확대하여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신속 정확한 분석을 위한 채집장비와 분석장비 인프라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그물망 구축으로 조사 영역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실제적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민간 자원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민간 주도의 해양쓰레기 발생저감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해양쓰레기 ZERO 예적금 개발, 제주지역 20개 기업과 함께하는 제주환경서약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 원료로 가공하여 생필품을 제조하는 자원순환 프로세스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폐기물 정보와 자원을 공유·융합하는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양폐기물 저감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려해변제도'를 추진하여 21년 현재 인천, 충남, 경남, 제주, 전남지역에 20개의 해변을 23개 기관이 입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려해변제도

특정 해변을 기업·단체·학교 등이 맡아
자신이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해변입양 프로그램입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이 저하되고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우리의 소중한 해양생태계 자원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상생 기반의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과 생태관광을 연계하여 일자리와 지역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해양보호구역은 총 31개소, 면적 1,798km² 규모로 제주도 전체 면적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해양보호구역센터(Marine Protected Area Center) 운영

해양보호구역센터는
해양보호구역의 통합관리 구심점으로서 해양보호구역 지정, 평가, 현장관리와 시민모니터링, 홍보·인식증진, 이해관계자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형 관리체계의 구축과 해양 보호구역의 생태·사회·문화·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현황



습지보호지역(14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2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14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1개소)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강화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특성과 변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갯벌, 연안, 근해, 암반 생태계 전반의 과학적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생물 다양성 보전,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 사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종합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해양환경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를 위한 해양생태축 범위 설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친환경 갯벌생태계 복원

공단은 갯벌 복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래로 환경위기 극복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갯벌복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분야 그린뉴딜 사업으로 갯벌복원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척 등 산업화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고 자정능력이 약화된 지역을 우선 복원대상으로 선정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서산 웅도, 신안 암태·추포도, 순천 화포해역 등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인력 확보와 지역 맞춤형 갯벌복원사업 추진으로 갯벌 복원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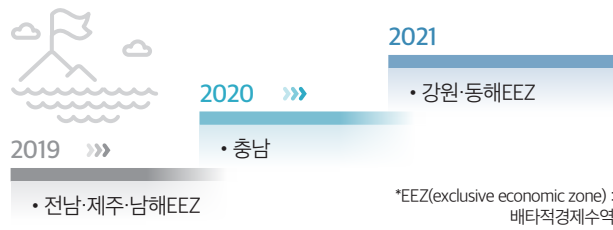
갯벌복원사업 무창포 조감도

해양공간계획 평가 전문기관 지정·운영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보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를 사전에 지정하고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해양공간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정책 결정 및 실행이 요구됨에 따라, 미국, 영국 등 해양환경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양공간계획 관리를 핵심전략화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해양환경·생태계 인프라 및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해양 공간의 이용·개발 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도별 이해관계자와 활발한 소통을 진행하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있습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전개 (특성평가 및 용도구역 지정)



해양환경 오염원 추적 모니터링 강화

공단은 해양환경측정망을 바탕으로 전국 425개 정점에서 해양 환경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양환경 오염원 추적을 위한 국가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환경조사 선을 동해, 서해, 남해 해역에 배치하여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교육·연구·정책 등의 분야에 활용합니다. 또한, 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유기수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골재채취단지 관리

골재채취단지 관리는 국가 골재 공영제의 공급원인 EEZ 바닷모래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역사회의 우려에 따라 공단은 해양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 골재채취단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어종의 산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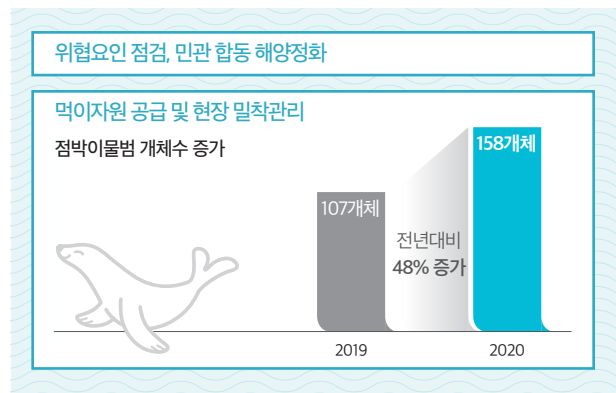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와 인위적으로 훼손된 갯벌, 연안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멸종위기에 놓인 해양보호생물의 개체수를 회복 시키기 위해 인공증식 기술개발 및 자연방류, 서식지 개선사업 등을 수행하며, 해양보호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전기관 및 전문 구조·치료기관 네트워크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 서식환경 개선과 현장 밀착관리로 인공침터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 개체수가 48% 증가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관·학 협력 협의체 구성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 곳곳에서 서식지 개선 및 복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독도 서식처 기능 개선 및 복원

- 해조류 이식 및 천적생물 방류
 - 독도 갯녹음 원인생물(성게, 석회조류 등) 제거
- >>> 독도 갯녹음 현상 개선효과 2배 향상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지 개선 및 보호협력



고려한 골재채취 금지기간 설정, 저서생태계 보호를 위한 채취깊이 제한 등을 통해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유사 발생량을 저감하고 누적영향을 최소화하여 골재채취 간 부유사 발생 기준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도입

해양환경공단은 2020년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규격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여 방제자원 효율화 및 비용 절감, 환경 규제에 대한 정부정책을 반영하였으며, 환경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해양 및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매뉴얼·부속서 등 친환경 시스템 기준을 정립하여 방제선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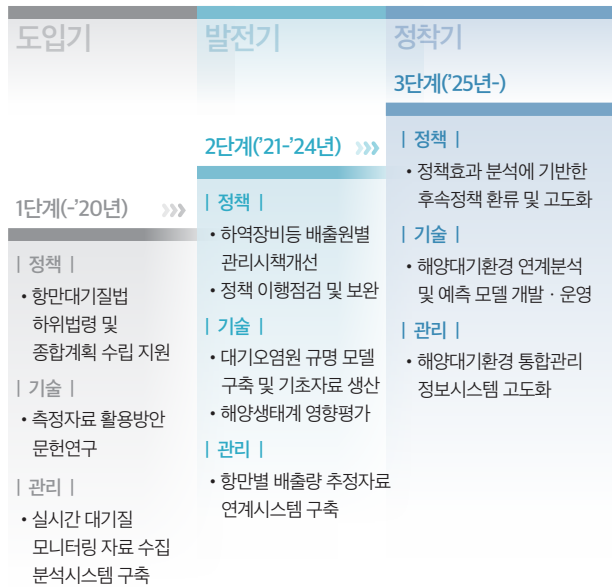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공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동참하여 2030년까지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성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전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및 대중교통 이용 장려활동을 통한 교통발생량 저감활동을 비롯하여 친환경 녹색 제품 구매 및 LED 조명 설치 등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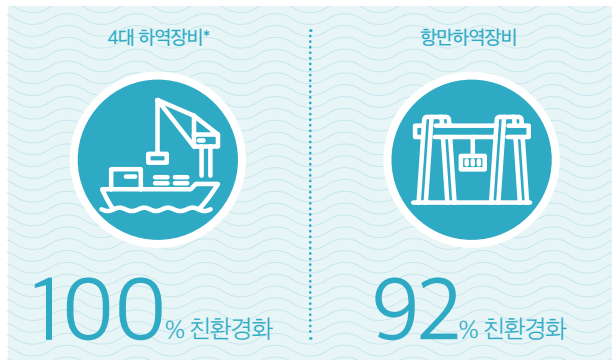
해양대기환경 통합관리

항만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및 대기질 관련 이슈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주요항만과 도시의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 수집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으로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직접배출량을 60% 감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전환계획 수립(2021-2025)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전환계획(2025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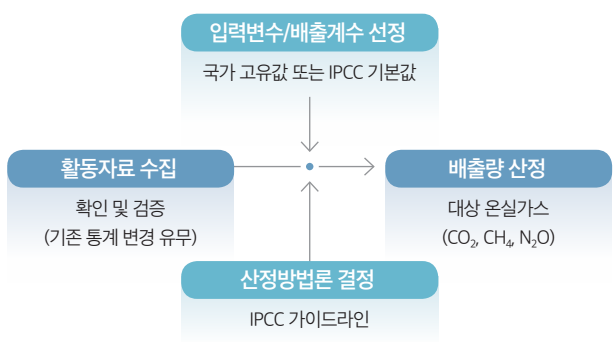


* 아트랙터, 컨테이너크레인, 갠트리크레인, 스트래들캐리어

온실가스 감축인증 위탁기관 지정 및 연계 활동 강화

공단은 해양수산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운영을 위한 해양수산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국제기구 기후변화 의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주요 국가 시책을 수립하고 법령 제·개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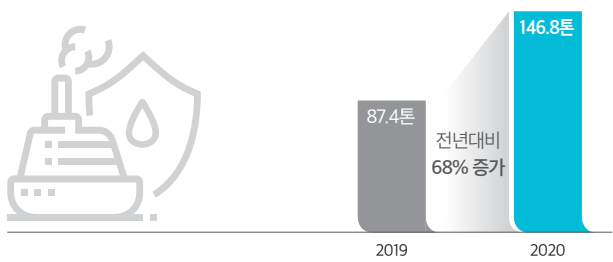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



영세어선 선저폐수 수거 확대

선저폐수는 해양환경 오염 원인 중 하나로 선박의 기관실 밑바닥에 고인 물에 기관실 설비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이 포함된 유성혼합물입니다. 공단은 어촌계 주민들의 선저폐수 무단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단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10톤미만 소형어선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운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를 확대하여 수거량을 증대하고 업무매뉴얼 제작, 인센티브 확대,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어민의 해양환경보전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세어선 선저폐수 수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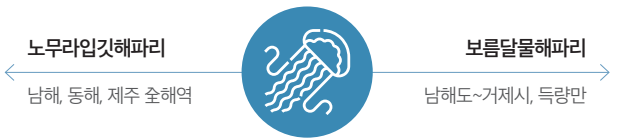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강화

국내 유입 가능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사전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전국연안 39개 정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선박 입출항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항로표지 등부표에 부착된 생물을 활용하여 생물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방사능 분석실 운영을 통해 방사능 숙련도 평가 결과 전 항목에서 '만족'을 달성하였으며,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해양방사능 분석방법의 표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시 활동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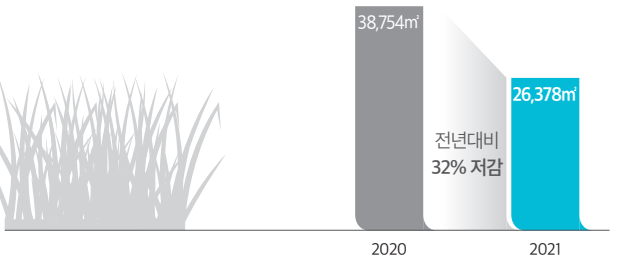
유해해양생물 제거 관리 확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번식을 통해 해양 생태계와 서식지를 교란하고 있는 해파리 제거를 위해 해파리 폴립 제거 기술 특허를 취득하고, 보름달물해파리 폴립 제거사업 대상지를 42개소에서 52개소로 확대하였으며 해파리 위기 신호등을 개발하는 등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갯벌 면적을 잠식해 가고 있는 침략적 외래종인 갯끈풀 억제를 위해 시민참여형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산우려지역에서의 신규 서식을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뿌리제거기술 적용 및 사후관리 도입으로 서식면적이 32% 감소하였습니다.

해파리 차단·억제



유해해양생물 갯끈풀 서식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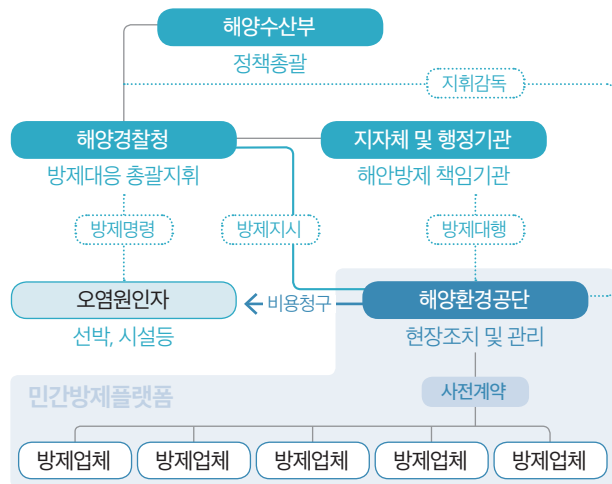


미래를 대비하는 해양오염사고 예방

국민 안심 국가통합방제 협력체계 구축

해양환경공단은 방제사업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복합적인 해양 재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통합방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민간방제자원 동원·관리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민간 잠수인력, 해상 기중기 등 다양한 방제자원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방제업 육성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영세한 민간방제 업체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통합방제 협력체계



디지털 방제대응체제로 전환

현장 경험과 육안에 의존했던 아날로그 방제에서 탈피하여 과학 기반의 디지털 방제로의 전환을 위해, 공단은 방제절차별 디지털 방제기술(OSP, TRS, IOT)을 새롭게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제 전략 지휘 시 실시간 해상정보를 활용한 유출유 확산예측(OSP)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 단일 지휘가 가능한 디지털 무선통신 (TRS)을 공단 전 선박에 적용하여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시간 사고 현장 파악 및 대응 지휘를 위해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웨어러블 카메라와 IoT를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 노력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해정안전부 표창 등을 수상 하며 대외공신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목적 대형 방제선 ‘엔담호’ 건조

방제선이란 해양에서 유류오염사고 시 방제조치를 수행하는 선박을 통칭합니다. 공단은 보다 효과적으로 방제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5,000톤급(길이 104m, 폭 20.6m) 다목적 대형방제선인 엔담호 설계를 마쳤습니다. 엔담호는 2022년 상반기 건조 완료 예정입니다. 엔담호는 Sea State 5(파고 4m, 풍속 약 10.7m/s 내외) 해상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향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응하고, 항내 위험선박의 비상 이동을 지원하는 등 전천후 국가 재난 대응 선박으로써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다목적 대형방제선 주요 특징

- 복합 방제대응**
 - ▶ 다양한 유종·상황에 대응 가능한 유회수기 커스터마이징
 - ▶ 중질유 | 대형사고 대응 고용량 중대형 장비 탑재
 - ▶ 경질유 | 회수율 높은 KOEM 자체 개발 유회수기 탑재
- 비상시 예인기능**
 - ▶ 항내 위험사고 선박의 비상 이동 예인기능 적용(5천톤 규모)
 - ▶ HNS 유출 또는 폭발 위험선박의 사고시, 먼 바다로 비상 이동(2차 사고 위험 사전 방지)
- 화재 대응강화**
 - ▶ 대형 화재사고 발생 시, 진압 가능토록 소화기능 강화
 - ▶ FFS1급 소화설비 | 시간당 2,400톤/120M 까지 방사
 - ▶ 선체보호 | 타선 화재진압 시 본선 보호 자위살수 기능 탑재

다목적 대형 방제선 ‘엔담호’



구분	기존 방제선(20~4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유회수 용량	약 20~200kl/h	720~1,440kl/h
작업 파고	1.5m 이내	3m 이내
작업 구역	항만 및 연안해역	연근해 가능
회수유 저장탱크	약 5~50kl 규모	약 5,100kl(전용탱크 및 준설토창 활용)

친환경선박 운영 확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단은 선박의 연료 절감과 대체 연료 등 관련 기술을 탑재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선박 건조를 활성화하고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LNG 방제선 기반의 친환경선박 도입으로 항만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국제협약기준 친환경 방제선 관리 개선을 통해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GREEN SHIP’ 인증을 획득하며 그린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LNG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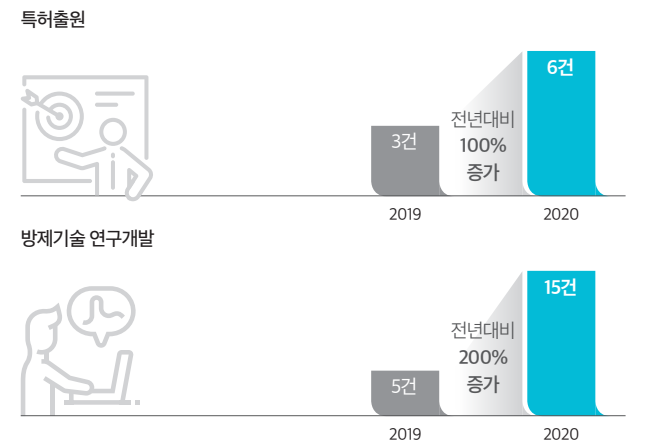
방제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및 국산화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 방제기술 연구·개발과 방제 장비 및 기자재 성능시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방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연구 성과물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방제연구개발 예산은 총 4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48% 증가된 금액입니다.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 공모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내외부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선진 방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공단은 해외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방제장비를 국산화하고, 국산화한 장비에 대해서 해외 판매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방제장비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수거하는 장비인 유회수기(KOSED65)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긴급방제 공동대응팀 운영

해양재난 및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해양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협업하여 긴급방제 공동대응팀을 창설하였습니다. 공단의 해양방제본부, 12개 지사, 13개 사업소와 해양경찰청 중앙특수구조단 등으로 구성된 긴급방제 전문대응조직은 최고의 방제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긴급방제 공동대응팀 운영을 통해 해양오염방제 골든타임을 적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방제장비 기술개발 현황



KOSED18



KOSED100

주민자치형 방제역량 강화

원거리 등 사고대응이 취약한 어촌계의 경우 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어촌계 방제대응센터를 기반으로 주민 자치형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단은 53개의 어촌계 방제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어민,

어선 동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와의 적극적인 협력 강화로 긴급방제동원 기능선박 1,849척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2020년 대비 463척 증가된 수치입니다.



국가 해안방제 조직체계 구축

해안방제의 경우 방제전문기관이 아닌 각 지자체가 방제 작업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보다 효과적인 해안 오염사고 대응과 오염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국가 해안방제 거버넌스를 새롭게 출범하여 해안방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해역 지자체와 해안방제 위탁 업무협약을 체결을 기반으로 유사시 공단이 주도적으로 해안방제 대비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안방제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공단 주도 해안방제 거버넌스 구축



* 고위험 해역 지자체 업무협약 체결(충청남도, 전라남도)

침몰선 관리 및 잔존유 제거 활동 강화

해양 사고로 침몰한 선박이 방치될 경우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 요소가 되거나 선체 부식으로 잔존유가 유출되어 주변 어장과 양식장 등에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언제 유출될지 모르는 침몰선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잔존유 제거를 위한 공정과 관련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해당 기술을 민간 업체에 이전하였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구난 업체 기술력에 의존했던 잔존유 제거 작업을 순수 국내 기술로 전개할 수 있는 기술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최초 국내 순수 기술력으로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작업을 완수한 이래로 본격적인 잔존유 제거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3척에 대한 잔존유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규모 해양재난 대응태세 강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전국 12개 항만에 총 73척의 방제선박 및 각종 방제장비를 배치하여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제장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항만에 지속적으로 방제대응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서 해양오염 사고 발생을 대비하는 한편, 신속한 초동 방제조치를 위해 각 어촌계별 방제장비를 배치하여 별도 운영하는 등 공단은 24시간 방제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규모 및 발생장소, 해상 상태 등을 고려한 다양한 훈련을 통해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해 유출사고 감시와 사고 범위 파악 등 첨단화된 사고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제대응태세 점검을 위한 해상훈련

위험·유해물질(HNS) 방제선 확보

위험·유해물질에 오염된 현장의 경우, 일반 방제·예방선으로는 접근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은 HNS사고 시, 복합적 특수임무 수행이 가능한 방제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단 보유 HNS 방제선은 긴급 투입 상황에 활용가능한 양압 설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방제 기능 외 활용 가능한 해상 소화포를 탑재하는 등 복합특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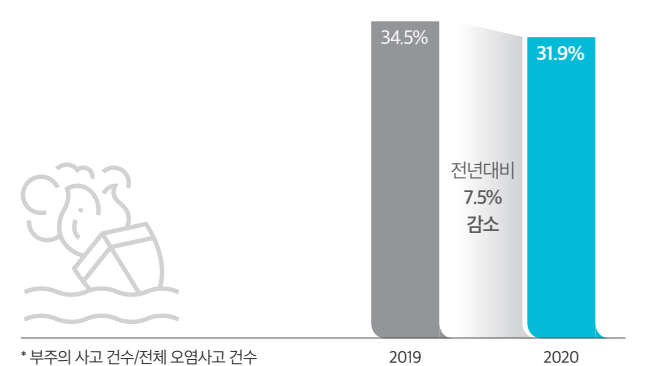
방제선박 보유현황 (단위: 척)			
방제선		방제보조선	
방제선	7	방제부선	3
청방선	22	작업선	11
예방선	27	기타선	3
계	56	계	17
합계		73	

* 선박의 고유업무에 따라 방제선, 청방선, 예방선, 방제부선 등으로 분류

현장 중심 해양오염예방 전략 수립

부주의 사고에 대한 오염예방관리 활동 뿐만 아니라,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오염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장 중심 해양오염예방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해양오염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 부주의 사고율이 31.9%로 역대 최저 수치를 달성하였습니다.

해양오염사고 부주의 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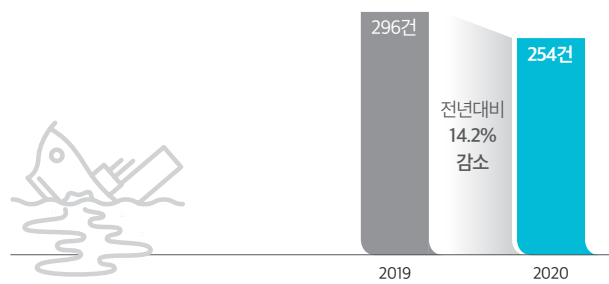


* 부주의 사고 건수/전체 오염사고 건수

해양오염 예방영역 확대 강화

공단은 해양오염사고 건수 저감을 목표로 고의, 파손 사고 저감을 위한 민·관·공 예방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선박 무상 점검, 국민인식증진 활동 등 국민참여형 해양오염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활동이 실질적인 해양오염사고 저감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해양오염 순찰 시 드론을 더욱 활성화하며 스마트 해양 오염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론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소속기관 직원의 조종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고성능 비행드론, 수상·수중드론 등 30대를 보유 중이며, 향후 취약해안조사, 장기계류 선박 확인, 3D 맵핑(Mapping) 등에 드론을 접목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체 오염사고 건수



2021년 드론 조종자격 102명 취득

실효성 있는 해양오염 예방 교육

해양종사자 교육만으로는 고의·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저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존의 종사자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해양오염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인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사고대응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선박 유해액체물질 사고사례)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유회수기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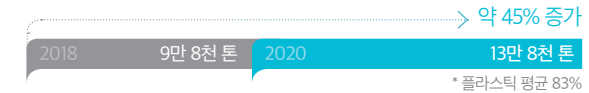


임직원 직무교육

우리 바다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해양환경공단은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14개 주요항만에서 22척의 청항선을 운영하여 해양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총 48개소를 중심으로 해양 침적폐기물 정화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수거량 추이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수거량 분류별 추이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평균 수거량



2021년 해양쓰레기 개선을 위한 공단의 활동



해양쓰레기 피해





해양환경공단은 바다와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건강한 해양생태계 환경처럼 임직원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국민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전하는 공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KOEM'S APPROACH

공단의 ESG 비전에서 도출된 가치와 Value Chain을 연계하여 가치지향적 분류체계로 이해관계자를 구분,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전 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소통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관계를 구축하여 공단과 사회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0 PERFORMANCE

2,625개
(20년 목표 2,597개)

연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



0건
(20년 목표 0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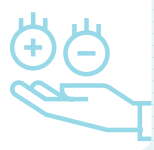
15건

공동연구개발
확대



132백만원

어촌 지역소득
창출



해양사업분야 지속가능발전 가치 창출

해양사업 공익성 강화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예선분야 공공기관으로서 상생협력, 해양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예선시장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선운항 미래인재 양성 및 예선업 종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단 전문인력과 해사 전문기관이 협업하여 국내 최초 현장중심의 예선운항기술 교재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 도입을 주저하는 LNG 선박운영과 친환경 연료유 사용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해양 분야 그린 모빌리티 전환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선박 및 인력 등 보유 자원 현황, 항만별 선박 입출항 물동량, 해양오염방제 대응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8개 항만에 예방선 27척을 배치하여 항만물류 기능 유지 및 해양사고에 대비·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사고를 예방을 위해 민·관·공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선박 통항 밀집지역 항행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 및 처리 할 뿐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긴급출동을 통해 인명구조 및 선박 구난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단 예방선을 활용한 해양사고 구조·구난 조치 건수는 총 68건으로 이는 전년대비 147.8% 달성한 수치입니다. 해양안전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해양사업 효율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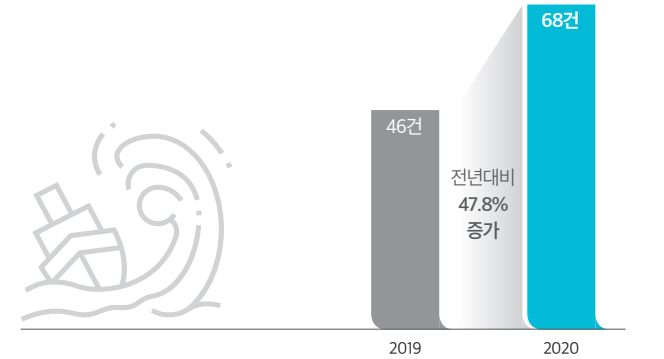
선박 대형화로 인해 항만 입·출항 척수 감소로 인해 항만예선 수입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단은 경영위기 극복 및 지속성장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해양안전강화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항행장애물 제거사업 신규 수주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해양사업 수익성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 중입니다.

해양치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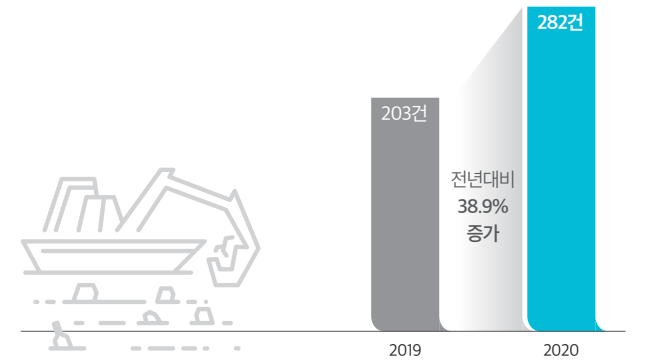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체질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입니다. 공단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되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선 공적업무 확대

항만예선 구조·구난 조치



항행장애물 제거 조치



부산오륙도 표류 유조선 긴급 구난

2021년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사람중심 안전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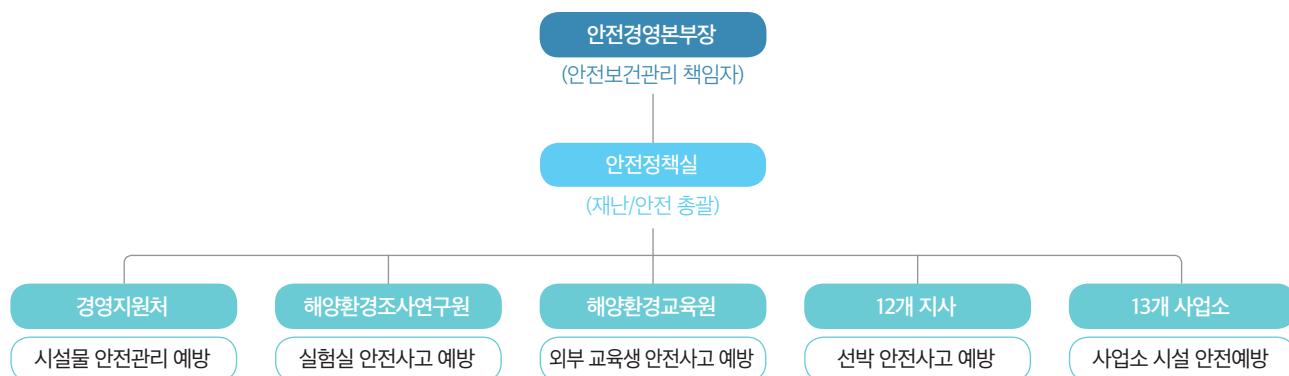
이사장 주도 안전경영 강화

안전경영을 위한 신임 이사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안전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안전컨트를 타워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단은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한 ‘노사공동 안전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안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자 매주 이사장 주관 하에 안전점검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공공기관장 안전리더십, 작업장 안전수준 대폭 향상 등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기획재정부 안전 관리등급제 심사에서 ‘안전관리 혁신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도적 안전 인프라 구축

2021년 6월 공단은 안전관리팀을 안전정책실로 격상하고, 전담 인력과 예산을 충원하며 재난 및 시설안전 관리, 사고 대응, 리스크 관리 등 전사적인 안전관리 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며 안전전담인력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자를 전체 보직자로 확대하는 등 모든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정책실은 전체 안전 Value-chain 관점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법적이행 사전점검과 협력업체 피드백을 확대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돌봄지수를 도입하고 안전관리실적과 성과지표를 연계하였으며, 매분기별 안전 환류활동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 추진 조직



노사공동 안전경영 선포식

안전보건경영방침

해양환경공단은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에 있어 안전보건이 필수 불가결한 핵심적 경영요소를 명확히 인식하고 다른 어떤 가치 보다는 우선시 한다.

안전보건이 경영의 제원칙이고 모든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 법규 및 규정, 방역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 산업안전 보건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책임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도급사업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눈에 보이는 위험의 해소를 넘어 잠재된 위험을 발굴·개선하여, 위험의 외주화가 아닌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구조로 개선한다.
-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 기본원칙과 지침을 반드시 실천하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현장중심의 안전보건 활동 및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

안전보건경영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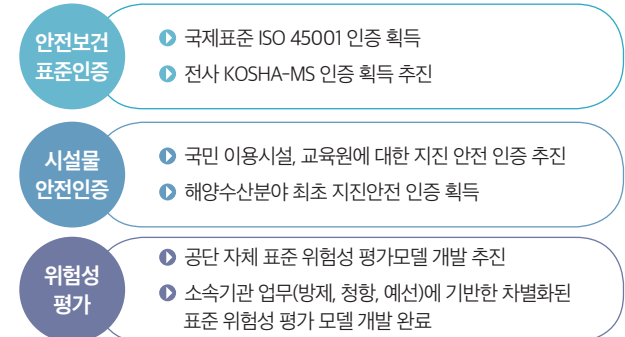
안전보건규정 제·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발주기관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공단은 선제적으로 안전보건규정과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을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지침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지침에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승인절차 신설, 제안서 평가 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본부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등 도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 위험·작업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개정하고, 선박안전과 해상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서 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기반 안전보건체계 확립

공단은 국제기준에 따른 선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소속 기관까지 전사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 안전보건 프로그램 개발, 안전 리더십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한 결과, 안전보건분야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하며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하는 KOSHA-MS를 도입하는 등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보건 활동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와 도급사업 수급자 등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안전경영 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민 이용시설에 대한 지진안전 인증과 자체 표준 위험성 평가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등 안전활동의 범위 또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경영 인증·평가 현황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

공단은 안전관리체계 구축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 의식 수준진단, 안전관리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차사고 발굴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와 여름철 폭염 등의 상황에 작업중지제를 통한 근로자 건강확보가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공단 안전관리제도 시행 실적에 대한 포상 부여를 통해 각 종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진행하고 신입 직원부터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국민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교육·캠페인을 시행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소형·장기체류선박 무상 점검을 시행하는 등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사 공동 안전한 일터 조성

노사 공동으로 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안전경영 개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나아가 원·하도급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회를 개최하며 협력업체의 안전 예방 활동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노사가 함께 안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합동 점검반은 소속기관, 선박, 도급 사업장 근로자의 현장 안전 점검과 문제해결을 주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사 공동 시설물 합동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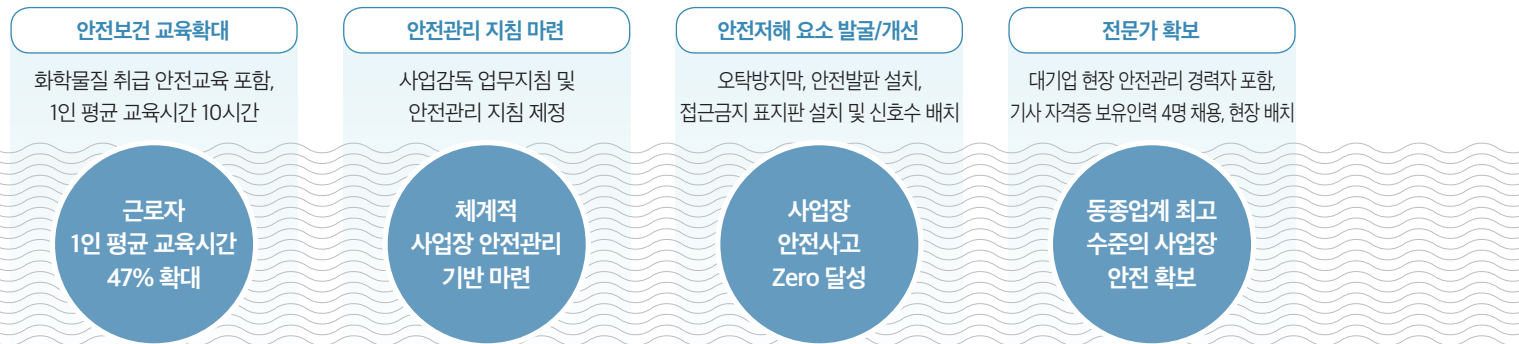
현장 중심 안전경영 활동 강화

공단은 매월 4일(시설물), 14일(작업장비), 24일(안전소통)에 테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점검현황과 우수사례 등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시 작업중지제도를 개선하고 Safety call(안전조치요청)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 안전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급사업을 포함한 위험성 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라 표준모델 기반의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존유 회수작업 안전보건체계 점검

안전관리 주요 성과



해양정화사업 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

공단의 대표적 도급사업인 해양정화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등 유해·위험요인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에 공단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업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도급사업 상생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 자격을 보유한 안전 전문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 예방 활동



이사장 주관 방재대응센터 안전점검



이사장 주관 선박 설비 및 장비 안전점검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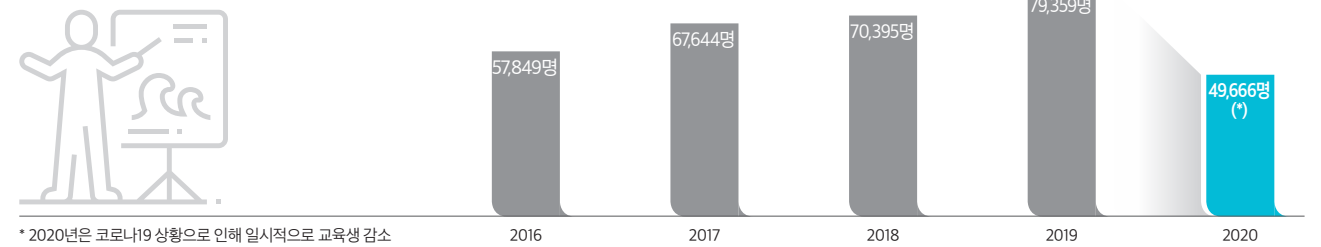
공단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민·관 상생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핵심기능유지체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강화를 위해 안전책임관을 신규 선임하고,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안전정책실 업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재난 예방역량을 제고 하였으며,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해양환경교육 및 국제협력

대국민 맞춤형 해양환경교육 확대

해양환경공단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 찾아가는 강사단, 해양환경교육기관 협력사업, 해양환경 진로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지역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전국 취약계층 지원 기관과 협업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5,262명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을 시행하며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비대면 교육 전환을 통해 656회, 17,548명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피해가 컸던 대구·부산 지역의 3,150가구에 가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해양환경교육 꾸러미(교육자료 10종)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교육 참여인원



해양 외교 활동 강화

해양환경 선진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하여 해양환경 국제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분야 국제협약 대응 및 신남방 지역 해양폐기물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화상회의 등을 통해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PEC, UN, PEMSEA 등 글로벌 해양환경 분야 협력 및 외교 활동 강화를 통해 해양환경 국제현안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교육 꾸러미



해양환경 이동교실

국제 협력 사업 확대

해양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대응체계 마련과 관련 연구, 사업 활동의 증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해양환경 및 방재분야 개도국 지원사업과 신사업 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연안 통합관리 및 수질자동측정소 설치를 위한 사업,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개선사업을 수행 중이며, 이 외에도 신남방 지역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인도 및 아세안 지역 개발 도상국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단은 해양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 및 공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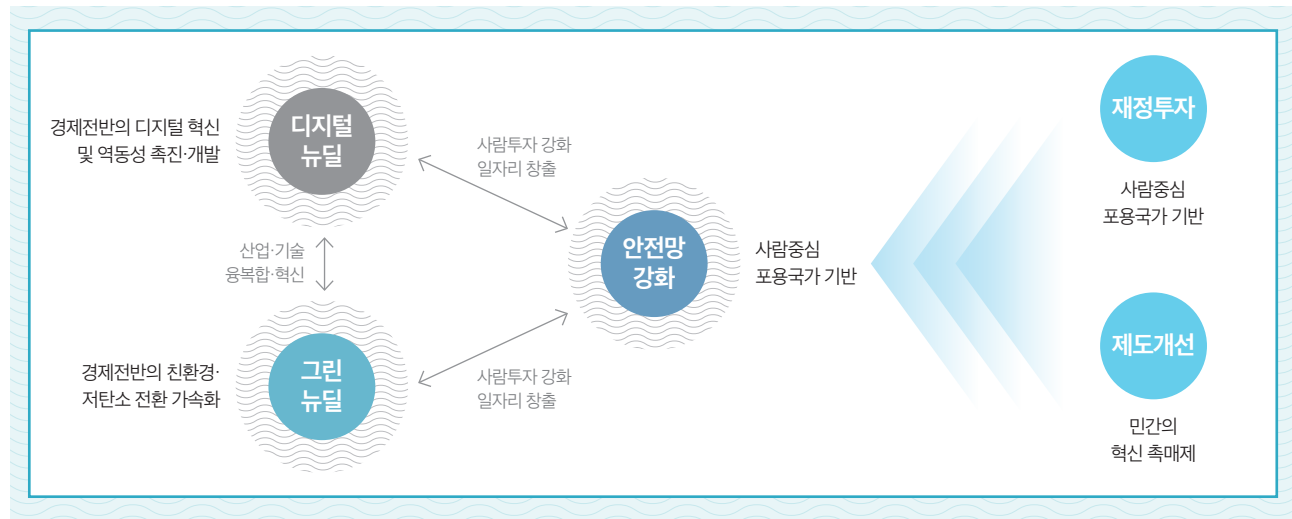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KOEM 뉴딜 반영 일자리 창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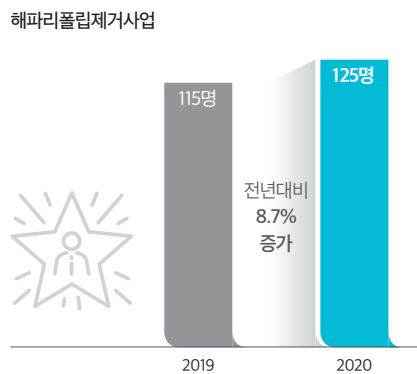
공단은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KOEM 뉴딜을 반영한 디지털 뉴딜 25.1억 원, 그린뉴딜 725.6억 원, 안전망 강화 뉴딜 40.0억 원으로 총 790.7억 원의 전략과제를 마련하여 KOEM 뉴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일자리 중심 경영 강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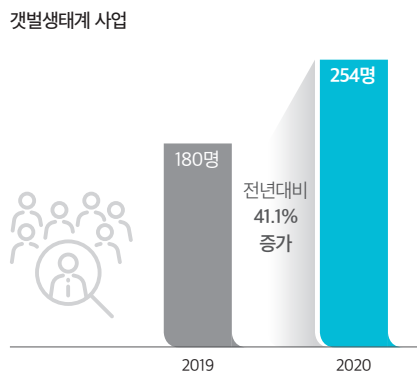
일자리 비전	국민희망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양환경산업 흡수환 선도			
일자리 목표	'21년 일자리 창출 연간 2,682명		'25년 일자리 창출 연간 2,924명	
전략방향	고용의 질 개선과 인사운영 효율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포스트 코로나 경제활력 민간 일자리 창출	소통·협력 기반의 혁신적 일자리 창출
전략과제	차별없는 행복한 일자리 구현 비정규직 최소화 및 관리체계 강화 임금피크제 인력의 효율화	합리적인 정현원차 관리 다양한 근로형태를 통한 일자리 확대 사회형평적 인사구현	기관 핵심사업 연계 투자 확대 해양분야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맞춤형 지원	신기술 개발 및 신성장사업 발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문화 확산 해양분야 일자리 플랫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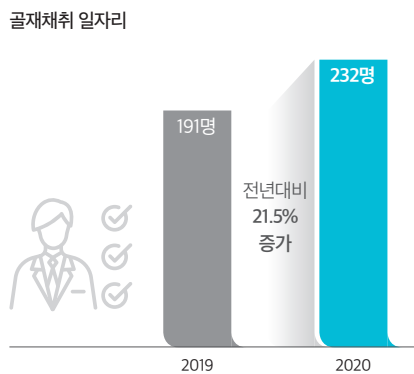
해파리 폴립제거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포함 일자리창출



어촌 지역주민 민간업체 및 전문기관 (환경운동연합 등)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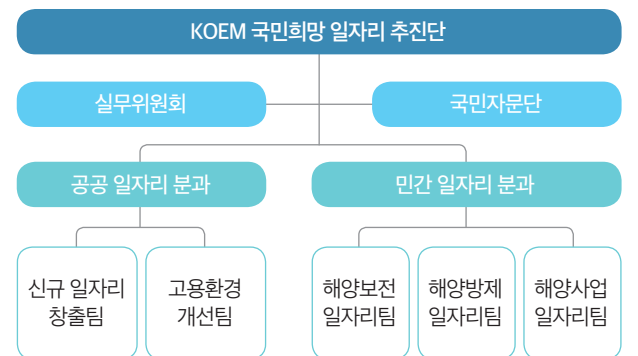
골재채취단지 운영 정상화 및 관리사업 확대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 지속 추진

이사장 직속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을 통해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차휴가 전체 촉진 및 초과근로 지양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재원으로 탄력정원(5명)을 확보하는 등 노사공동 일자리 나누기 동참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KOEM 뉴딜 등 신규사업 적극 발굴 등 민간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추진 조직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전담 조직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ZERO!!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적정성 강화

공단은 상시, 지속성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비정규직 채용 시 예산의 적정성 및 공정채용 유해요소 차단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전환 100% 조기이행에 따라 전환근로자에 대한 차별없는 좋은 일터를 적극 조성하여 고용의 질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스타트업 기업 연구 개발제품 테스트베드 지원

비정규직 전환 100% 조기이행에 따른 전환 근로자의 고용의 질 개선

<p>'17~'18년 48명 전환완료</p> <p>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공동 정규직 전환결정기구를 통해 상시·지속 근로자 전환계획 대비 102% 전환완료(전원 직접 고용) 	<p>'19년 5명 추가 전환완료</p> <p>사각지대 비정규직(영양사, 비서) 추가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지속 직무 추가 발굴·전환(노사공동) 전환보류 직무(영양사, 비서) 전환 직무 신설 및 합리적인 전환(채용) 방식 적용 	<p>'20년 비정규직 ZERO, 고용의 질 강화</p> <p>차별없는 좋은 일터 조성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의 질 강화를 위한 노사공동 개선과제 도출 및 과제 실행부서 적극 이행 비정규직 사전 심사제 고도화
<p>장애요인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인상 요청 승급시기 지연 소통채널 부족 대체인력 부족 	<p>소통채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조사 고용 현황 파악, 개선사항 점검 노사공동 인터뷰 직종 대표별 면담 진행 간담회 종합적인 의견수렴, 열린소통 수행 	<p>극복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공동 일자리 추진단을 통해 개선과제 이행 - 고용개선협의회 공공일자리 추진단 인사평가 체계 및 승급기준 등 규정제정, 임금협상 완료 등 차별없는 좋은일터 조성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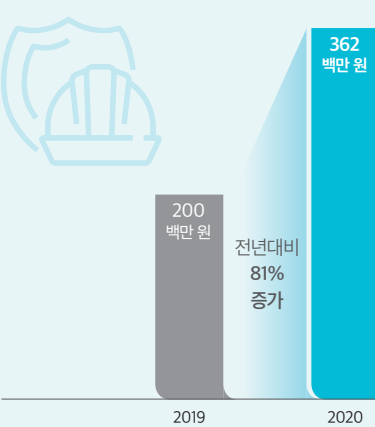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침체된 청년 취업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사공동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기반한 보상휴가제 도입, 불필요한 초과근로 제한, 연차휴가 전제촉진 시행 등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해 인건비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단 최초 탄력정원제를

도입 및 실제 채용(5명)까지 일자리 나눔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뉴딜정책에 기반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 정원을 확대하여 직접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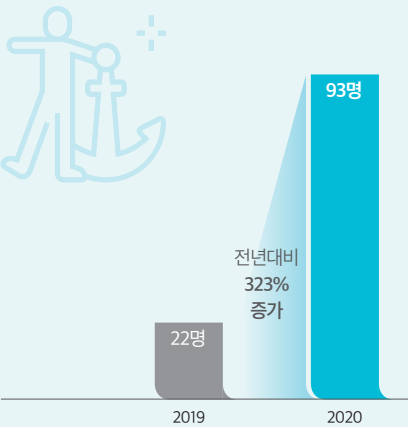
총인건비 확대없이 직원 공감대를 기반으로 노사공동 청년 일자리 확대(탄력정원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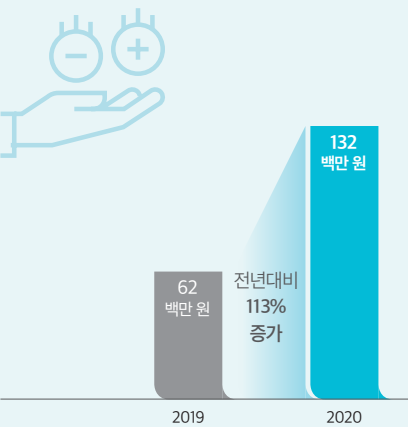
방제장비 국산화



어촌지역 일자리 제공 확대



어촌 지역소득 창출



민간부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에서는 해양환경 보전사업에 대한 확대 투자, KOEM 주도형 방제장비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국산화·현대화 사업, 선박 인프라를 통한 국내 조선업 일자리 창출 및 협력기업과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등으로 민간기업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 공단이 창출한 민간부문 일자리는 2,625개로, 이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래 新성장 일자리 지속 발굴 및 기술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단은 방제선 등 중소형 선박에도 적용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의 친환경 기술을 유관기관(KOMSA) 및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선 산업의 기술력 혁신 및 신규 시장 창출 등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판 그린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에너지로 해상풍력이 선정되어 해양풍력 분야에 대한 신사업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120억 규모의 고용 창출 및 지역 신규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공단은 미래 新성장 일자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며 해양 환경의 녹색정책을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더 나은 고용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020년 KOEM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주요 실적

공공부문	민간부문
신규 양질의 일자리 10개	해양분야 일자리 2,62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그린뉴딜 정책과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 보호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추진 등 신규정원 채용(5개)<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재해·오염사고 신속 대응 위한 선박인력(2개)- 폐유수거사업 등 현장 안전전문 인력(1개)- 해양 미세플라스틱 감시체계 구축 및 미세먼지 통합관리 분석전문 인력(2개)• 해양환경분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나누기 실현(5개)<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전제촉진 인건비재원 마련에 따른 탄력정원 확보 및 채용(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사업 맞춤형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1,657개)<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환경 그린뉴딜 정책 반영을 통한 해양환경보전사업 전문인력 일자리(1,391개)- KOEM 주도형 방제장비 국산화 등 투자 확대(101개)- 코로나19 극복, 조선업계 선박 투자 확대(165개)• 해양분야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795개)<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몰선박 잔존유 등 해양전문 중소기업 상생협력(636개)- 해운인력 일자리 매칭 지원(159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173개)<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보호구역 명예지도원 감사지도 활동 등 어촌주민활용

여성 일자리 적극 창출(해양보호구역 프로그램)



청년인턴 적극 신규채용



사람이 함께 발전하는 인재중심경영

경영전략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HRD 전략 수립

해양환경공단은 직무분석, 개인별 필요역량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력개발경로(CDP) 기반의 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통교육 외에도 리더십역량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양성평등 인재육성과정, 드론기술교육, 해양오염방지 실무, 공공갈등 관리 등 맞춤형 전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러닝 등 최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경력상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구성원 역량제고 및 조직 성과 창출을 위해 16개의 자발적 학습조직(CoP)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Best-HRD 인증 5년 연속 달성,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0 독서 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인증 및 우수상을 획득하였습니다.

교육성과 평가체계 운영 및 구성원 전문성 제고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성과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과정만족도, 성취도, 현업적용도 등으로 구성되며, 임직원은 교육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만족도나 업무역량 향상 정도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교육과정의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우수 교육생이 심화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에듀옴부즈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품질 제고 노력의 결과, 직원 교육훈련 만족도 점수가 전년대비 1.03점 상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개발제도(CDP) 기반 인재육성 활성화 및 시스템 정착을 통해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사소통 확대

노무복지 만족도 설문결과를 기반으로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설문결과에 따르면 MZ세대의 만족도가 평균대비 가장 저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공동 협의체', '바다가치 멘토링', '8090위원회', '웃음꽃 피는 KOEM 프로그램', '함께하는 독서클럽' 등 직원 상호 공감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8년 연속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분규 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노사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협력 체계 기반 안전보건 경영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사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경영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노사 공동 현장 합동 안전점검' 등 협업체계를 통해 계획부터 점검까지 임직원 안전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경비, 감정노동자, 노약자를 포함한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휴게설비 보완, 근로환경 개선 논의 등을 통한 취약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사합의를 통한 직무급 도입, 연차휴가 활성화, 탄력정원제 도입을 통해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동참하고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소통 CEO 간담회



노사 Summit 미팅(경영진-노동조합 집행부)

노사공동 파트너십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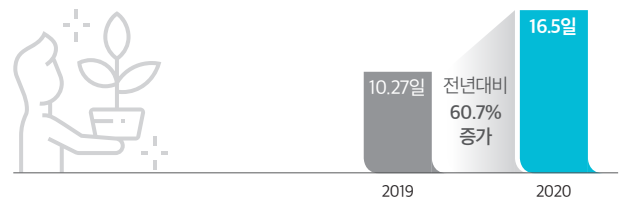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인재경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공동 목표설정·이행 컨트롤 타워 노동법·단협 정렬, 일·가정 양립 연계
인재경영처 안전정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규칙·근로계약 반영, 복리후생 개선 선원 취업규칙 개정, 안전환경 개선
기획·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연계 정보공유 및 성과 모니터링 일자리 창출, 인권·상생협력·사회공헌 확대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소속기관 코디네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 본부·실 및 소속기관 노무 담당자 노사협의회 참여, 의견수렴, 소통·역량 강화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협의회 보고/협의/의결기능 강화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 Pool 운영
노사관계 C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운영 직원 전문성 활용 내부 자문·협력 강화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근로감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정책 반영, 취업규칙 자문, 진정 대응 관할 근로감독관 자문, 교육 추진 자문 노무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무법인 전문가를 활용한 외부 자문조직 평가·수시 자문, 직원 교육, 전략 모니터링

행복한 조직문화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공단은 대내외 환경분석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KOEM 人-STAR라는 슬로건 아래, '공정한 성과급 지급체제 마련',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 개선', '비대면 정신건강 확대', '코로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등 8개 실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감정노동자,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진단·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몸건강과 마음건강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확대 운영하고, 건강한 정신건강을 위한 1:1 상담과 비대면 상담 확대를 코로나 블루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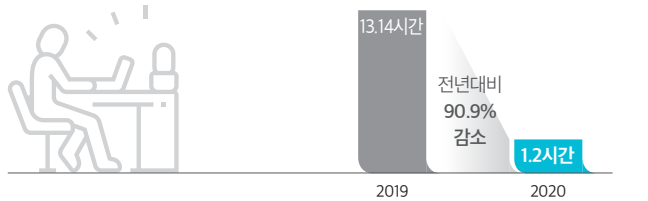
연차사용실적



임직원 라이프사이클 부합 일·가정 양립제도 운영

공단은 소속기관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자유롭게 근무하는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시차·출·퇴근형, 집중근무제, 스마트 워크센터 등 근무유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사회적 이슈가 반영된 원격근무 실적은 전년대비 31.5배(2019년 8명 → 2020년 252명) 달성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육아 휴직 대상자의 휴직권리를 전부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홍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시간외 근무시간



똑똑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조직문화 내재화

공단은 기관 맞춤형 일하는 문화 혁신(KOEM OASIS)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노사공동으로 '9 to 6'를 도입하고, PC-OFF제 운영, 불필요한 일

줄이기 과제 공모, 노사 합동 야근 실태점검, 사무실 자동소등제도 등 야근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월 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이 9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직문화 혁신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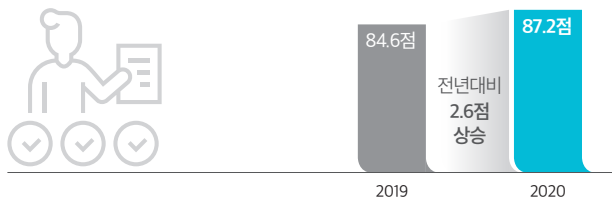
확산·내재화	KOEM Value-up 10		
	1 밝은인사 2 상대존중 3 정시퇴근 4 자율연가 5 간단회식 6 간단회의 7 합당지시 8 본인업무 9 협조문화 10 국민가치		
확산·내재화	양성 평등 7대 행동 양식		
	1 회식문화 2 호칭존중 3 출휴·육휴 인정 4 남직원 육아휴직 5 유연근무 6 성차별 금지 7 본인업무		
확산·내재화	오래 일하지 않기(shOrt)	똑똑하게 일하기(smArt)	제대로 쉬기(SatISfac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한 시간외 지양 PC-OFF제 시스템 신규 도입 선원근로기록부 도입 노사공동 수시 근로실태 자체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한 일 줄이기 47건 개선 재택근무 절차 간소화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확대 1:1:1 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원취업규칙 전문 개정 가족 돌봄 휴가 상시 활동 독려 연차축진 활성화 캠페인 신호등 캠페인 지속 추진
확산·내재화	혁신 프런티어! 경영혁신 주니어 보드		새 직원 참여, 행동수칙(Do & Don't)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층별 회의체 운영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혁신과제 발굴·시범 적용으로 경영혁신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 고진감래 캠페인 등 지속 추진 Don't 갑질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인권존중문화 대내외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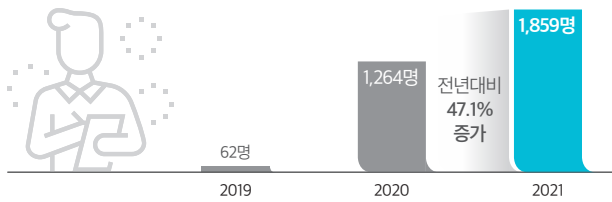
인권경영시스템 고도화

현대사회에서 인권은 노동권, 건강권, 환경권 등까지 확대되며,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전략목표와 8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영 전반의 인권리스크를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경영의 범위를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고,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인권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인권존중의 가치가 경영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또한 조직의 변화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인권경영체제와 제도를 대외 요구 수준으로 강화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선진화된 기반 구축을 통해 2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 성숙도 조사



인권교육 실적



인권경영 추진전략



정책·제도 정비

공단은 인권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권경영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을 제정하였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내부심사, 경영검토 등을 시행하고,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선정 시에도 인권경영 실천 노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여 협력업체의 인권보호 실천을 유도하고 있으며, 불공정 계약조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협력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 규정 상의 차별적 요소를 개정하고 인권경영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차별금지과 갑질 근절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실무조직 운영 활성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공단의 인권경영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인권실적을 점검하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노무사, 변호사를 포함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권리와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구제지침을 마련하고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인권경영책임관을 지정하고 인권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2021년부터는 조직의 실질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업하여 인권취약분야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단 인권경영 선언문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어떠한 인권 침해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상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행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이용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영업적 이득을 얻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적절히 보상, 조치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해양환경공단 임직원 일동

사회이슈를 반영한 인권경영 실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축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예외사항 발생에 따른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성을 추구하다 보면 개인 측면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으므로 업무별 인권보장 범위, 수용 가능한 인권 보호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갯벌 복원, 친환경 골재채취단지 관리 등 지역주민 협업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인권정책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요구 및 기대사항

이해관계자	요구 및 기대사항
지역사회	환경권·재산권 보장,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반국민	투명한 정보 공개 등 경영투명성 제고, 인권존중 기업 이미지 제고
서비스 이용고객	분쟁 시 공정 처리, 고객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정부/국회/지자체	이해관계자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법규 준수
협력업체	공정계약 및 계약내용 준수, 물리적·언어적 폭력 금지 등 인격적 대우, 산업안전 보장
임직원	고용상 차별금지, 인격권·건강권·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
노동조합	안전사고 예방 증진활동, 노사 협약 성실한 이행

맞춤형 인권교육 활성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고객에 의한 언어폭력, 차별행위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인권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인권교육인 KOEM 人flue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과 이해 수준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언어와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온라인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2021년부터는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인권 교육 만족도 조사를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과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취약그룹 인터뷰, 협력업체 인권실태 조사 등을 통해 취약점을 발굴·개선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협력업체 대상 인권침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위험사업장 안전을 강화함은 물론, 장애인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등 폭넓은 인권경영을

인권존중문화 내재화

공단은 직원 간 상호존중의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무의식적인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전 예방하고, 소속기관 직원 까지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전파하기 위해 매분기 넷째 주 금요일을 KOEM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히 공단 특성에 맞게 분기별 인권테마를 선정하고 부서 특화형 인권경영 준수서약, 직장 에티켓 자가진단, 인권존중 캠페인, CEO 인권소통레터 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0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존중 성숙도 설문조사에서 전년대비 2.6점 상승한 87.2점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추진해 왔습니다. 공단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 기관과의 신규사업 시 협약서 내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반성장

상생 협력 추진 체계

공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기술을 보유한 협력 업체를 통해 혁신 기술을 발굴하여 투자재원과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등 기술제품의 조기 국산화·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KOEM형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동반성장 비전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해양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과제	동반성장 추진체계 확립	공정거래문화 조성 및 결제환경 개선	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야 확대 추진	창업생태계 및 친기업문화 조성
추진과제	① 동반성장 추진조직 구축 및 운영 ② 성과평가 연계 강화로 동반성장 자발적 참여 유인	③ 상생결제제도 운영 등 결제환경 개선 ④ 공정문화 확산 및 불공정 행위 차단	⑤ 중소기업-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⑥ 협력이익·성과공유제 활성화 ⑦ 중소기업 기술협력 및 보호 지원	⑧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⑨ 협력업체 임직원 근무만족도 제고 ⑩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소상공인 지원

공단은 전국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전통시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생산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재해·재난 지역 농산물 등을 우선 구매하여 소상공인의 조기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 제품을 발굴하여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기회 제공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국가 방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대형방제선 설계와 건조를 국내 조선업체에 발주하여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던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침체된 조선경기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단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이 보유한 인프라와 자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지속 협력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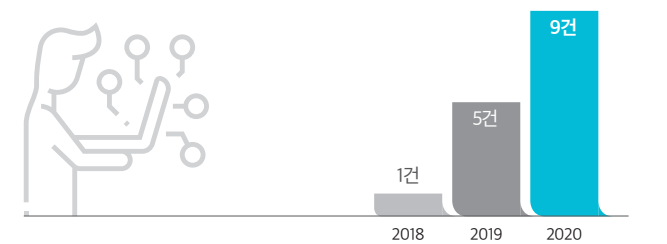
국내 외 판로 지원

중소기업 우수 기술제품을 발굴하여 구매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해양오염 방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워크숍에서 중소기업 생산 방제장비 동영상 시연 및 홍보 리플릿 제공, 해외 바이어 초청 매칭기회를 제공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투자재원 부족 등으로 독자적 연구개발이 어려운 협력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기술제품 조기 국산화·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해상 유류오염사고 위치 추적장비와 자갈 세척기 유증기 회수장치 등 총 4건의 공동 연구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스마트 유회수기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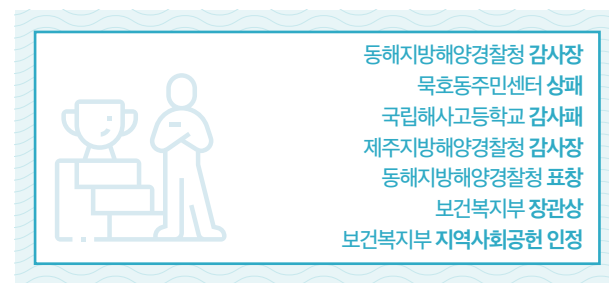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회공헌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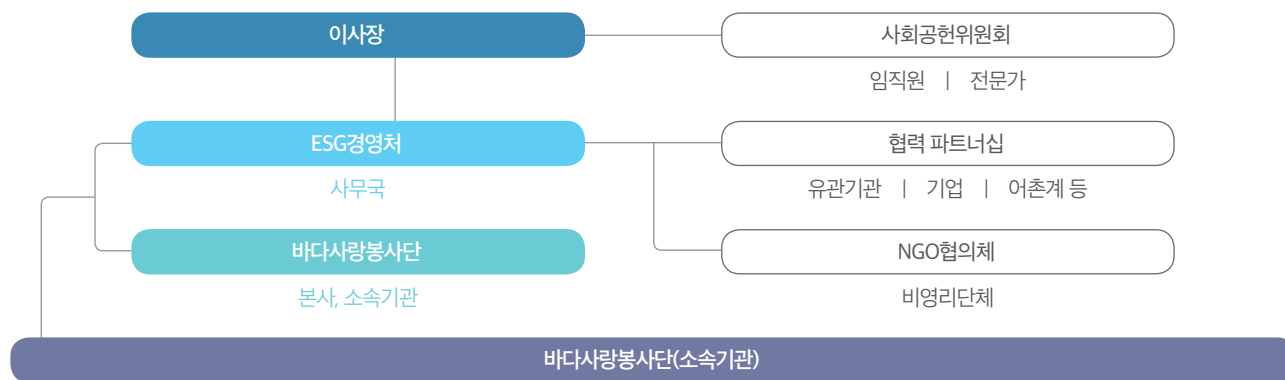
공단의 사회공헌 최고 의결기구인 사회공헌위원회로 임직원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공헌사업의 중요 방향 및 사회공헌 예산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처는 전사 사회공헌 활동 총괄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국정과제 및 전사전략과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 진행 실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공헌 관련 주요 수상



사회공헌 비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기관			
테마별	① 지역 든든海	② 바다 건강海	③ 미래 성장海	④ 국민 감동海
핵심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건강한 해양환경	미래 해양인재 양성	상생가치 실현
전략체계	지역 협력사업 발굴 해양환경플랫폼	공단 美 특성 연계 자율적 개선 체계	인재양성 기반마련 교육 취약지역 지원	취약계층 지원사업 노사공동봉사단 운영
추진과제	① 내수경제 활성화 지원 ②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③ 해양환경 인식개선 ④ 연안정화활동 확대	⑤ 해양환경 교육기부 ⑥ 미래 해양인재 양성	⑦ 취약계층 지원사업 ⑧ 노사공동 봉사활동

사회공헌 추진 조직도



전사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 강화

공단의 임직원은 노사공동 봉사단인 바다사랑 봉사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1인 연 8시간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목표로 사회공헌 4대 핵심테마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사회공헌 실적관리를 통해 전사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바다 건강海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공헌 추진 영역으로 민간 협업 해양 쓰레기 재활용 및 저감교육 캠페인, 연안 정화활동과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역량 활성화를 통한 자립형 사회공헌 활동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정화활동 및 사고예방활동의 경우 유관 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지역사회 대규모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제주·경남·충남지역 반려해변 연안정화 활동

미래 성장海

인재양성·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해양강국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 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해양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해양환경 이동교실 운영, 공단 본사 1층 '어린이 해양환경교육체험관 조성' 등 미래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층의 구직난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멘토링 및 토크콘서트 운영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 운영

지역 든든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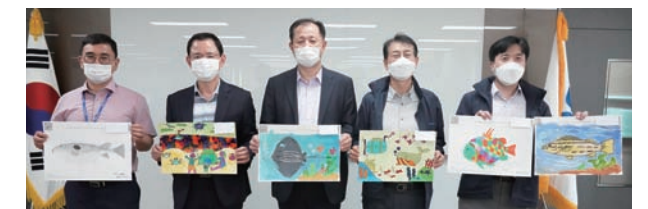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한 활력 불어넣기를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단의 주요 사회공헌 추진 영역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경기침체 극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1대1 자매결연을 통해 전통시장 판매 물품의 정기구입을 실시하였으며,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구입하여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송파 사회적경제 장터 캠페인

국민 감동海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이 위치한 13개 지역을 중심으로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된 소외계층을 위한 임직원 성금 모금 및 사랑의 열매 기부, 긴급 구호물품 전달, 관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대상 전통시장 상품권 기탁 등을 통해 사회의 온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개최된 '바다 DREAM 그림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비대면 공모전 방식으로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바다사랑 그림대회 지원

ESG Commitment 03
풍요로운 바다



해양환경공단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무한한 해양환경의 가치를 기반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창의적인 사업 추진 및 경영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공단과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푸른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KOEM'S APPROACH

ESG경영의 확산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 정책도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환경 및 안전에 대한 인식 증대와 상생경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단의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화되고 진정성있는 ESG경영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0 PERFORMANCE

8.67점



종합청렴도

15,224시간



청렴교육 이수

5.2일



정보처리
소요일수

83.3점



기록관리 자체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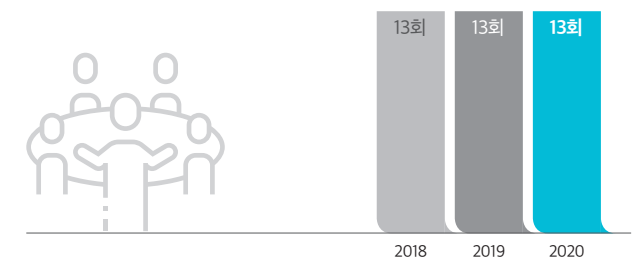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배구조

이사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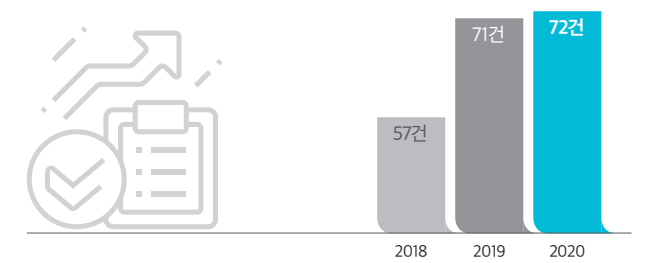
이사회는 공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관련 법령과 정관, 이사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공단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되며, 이사 중 이사회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개최실적, 주요 의결사항, 회의록 등을 비롯한 이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수 (단위: 회)



이사회 안건 수 (단위: 건)



2020 이사회 운영 실적

회차	개최일자	상정안건	회차	개최일자	상정안건
1	2020.01.16.	2020년도 예산 운영계획(안) 외 4건	8	2020.07.27.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2	2020.02.26.	2019년도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외 9건	9	2020.08.25.	임원 문책규정 개정(안) 외 8건
3	2020.03.25.	2019년도 이월예산 정정(안) 외 1건	10	2020.09.16.	2020년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계획(안) 외 5건
4	2020.04.1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4건	11	2020.10.27.	중장기(2021~2025년) 경영목표 수립(안) 외 4건
5	2020.05.20.	직원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외 3건	12	2020.11.18.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외 3건
6	2020.06.18.	임원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외 5건	13	2020.12.16.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외 8건
7	2020.07.15.	2020년도 예산 전용(안) 외 5건			



제5대 한기준 이사장님 취임식

이사회 구성

2021년 9월 기준 공단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며,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비상임 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 내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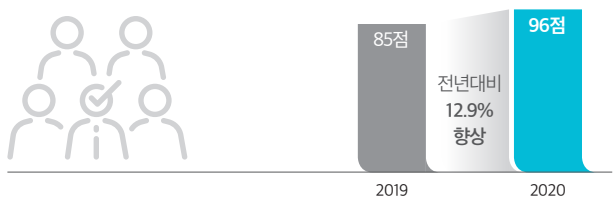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소속	직책	선임일
상임이사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2021.03.26.
	김희갑	해양환경공단	안전경영본부장	2019.04.29.
	유상준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	2020.07.01.
	박창현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제본부장	2020.07.25.
비상임이사	신형철	前 산업은행	감사	2021.06.04.
	주정빈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본부장	2020.05.07.
	홍원일	前 한국해양대	사무국장	2020.10.06.
	이태훈	前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2020.10.06.
	장유경	(주)큐비엠	대표이사	2021.06.04.

이사회 성과 평가 및 보수

이사회 운영 실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를 토대로 평가 됩니다. 이사장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단의 경영성과, 주무기관의 장과 체결한 계약 내용과 이행수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는 기본 연봉을 기반으로 이사장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적정 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수 관련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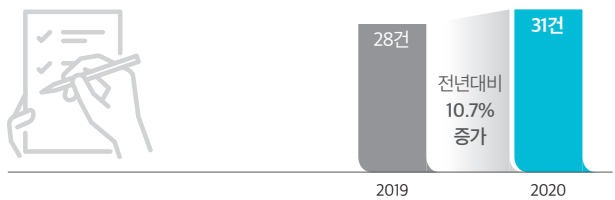
이사회 만족도 (단위: 점)



비상임이사의 참여 확대

2020년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의 참석률은 100%를 달성하였으며, 발언 비중은 전체 발언의 60%이었습니다. 정기 이사회 참여 외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내부직원 대상 재무역량 강화 강의 및 경영 현안 정책협의 등을 실시하였고, KOEM 그린뉴딜사업과 동반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사업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경영체제 확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회의 투명성 및 내부 소통강화를 위하여 이사회 안건, 이사회 개최 결과 및 주요 제언 등을 전 직원 및 노동조합과 상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은 노사 합동 CoP 운영을 통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이사회 만족도 조사결과 96점으로, 전년 대비 12.8% 향상되었습니다.

보고안건 수 (단위: 건)



청렴한 KOEM으로 재도약하는 윤리경영

준법·윤리경영시스템 고도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높은 윤리의식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보의 투명성도 요구 됩니다. 공단은 신임 기관장의 강력한 윤리경영 추진의지 하에 준법·윤리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개개인의 행동강령 내재화를 유도하는 등 업무 투명성 강화와 불공정 관행을 전방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단은 소통·공개 원칙을 기반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청렴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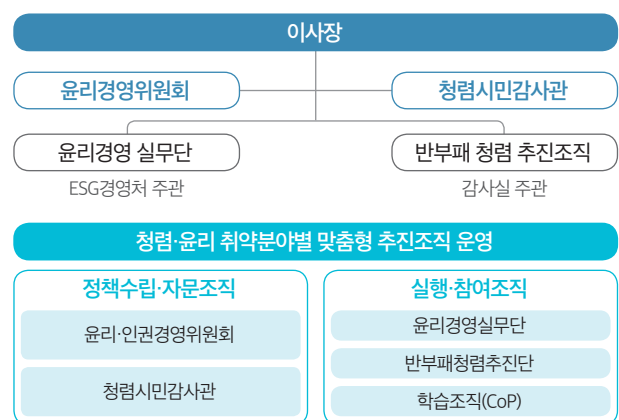
추진과제

추진전략	준법·윤리경영시스템 고도화	공감기반 예방적 윤리환경 조성	실천하는 청렴윤리 문화 정착	업무 투명성 제고
주요 전략과제	① 준법·윤리경영 조직·규범 강화 ② 준법·윤리경영 제도 운영 내실화	① 윤리적 리더십 강화 ② 다각적 교육 및 고충처리 개선	① 청렴윤리 문화 내재화 ② 청렴윤리 생태계 확산	① 기록물 관리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②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운영·경영관리

윤리경영 추진조직 강화

체계적인 윤리경영 추진을 위해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공단 비상임이사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며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처와 감사실을 주축으로 윤리경영실 무단, 반부패청렴추진단, 부패취약분야별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청렴실천리더(예산), 청렴메이트(인사) 등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처, 계약주관부서, 5개 주요사업별 담당자로 구성된 청계천(청렴 계약 실천캠페인)을 신설하여 계약부문의 투명성과 부패취약분야과제 발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조직도



해양환경공단 윤리현장

해양환경공단 윤리현장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 분야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기업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직과 자부심을 가지고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현장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 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생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협력회사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끊임없는 혁신과 환경·안전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해양환경공단 임직원 일동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운영

공단은 준법·윤리경영 내실화를 위해 기관장이 공정거래자율준수 선언을 하였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강화된 준법·윤리경영 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공정거래 법규 준수사항과 자율준수교육 운영, 내부감시체계 등을 명시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자율준수 협의회를 신설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거래행위별 위법요소를 발굴하여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징계 감경 금지, 특정업체 특혜를 금지하기 위한 임직원 용역감독 이력관리 조항 신설, 부정청탁 징계기준 마련 등 부패방지를 위한 규범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공정경쟁법 위반사례 ZERO를 달성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 5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준법·윤리경영 프로그램 확대

해양환경공단은 직급·세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소통을 확대 하고 불합리한 관행 근절로 상호 존중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청렴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국민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고자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직원이 입사 초기에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인 청렴 멘토링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과 주요 판례 내용을 담은 윤리경영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 하는 등 준법·윤리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원스트라이크아웃	• 한 번의 금품·향응수수만으로도 부패행위자는 적발 즉시 해임 이상의 징계로 엄정히 조치하여 공직사회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제도
청렴 마일리지제도	• 청렴교육 이수, 청렴아이디어 제시 등 임직원의 청렴관련 활동에 일정한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하는 제도
청렴계약 실천캠페인	• 비대면 원칙 : 계약 필요서류 온라인 확인 및 우편수령
	• 청렴 미란다 원칙 : 금품·향응 수수 금지, 청렴계약 이행
	• 클린타임 준수 : 식사시간 전후 회의 지양
	• 청렴준공확인서 : 준공 시 불공정행위(갑질 등) 발생여부 점검
협력업체 청렴·인권 실천서약	• 공단과 협력업체 상호 간 청렴계약 이행 및 인권보호 노력 다짐(청렴준공확인서, 인권보호서약서)
청렴시민감사관	• 공단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조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5인을 위촉하여 운영
상시자가청렴학습 시스템	• 반부패 청렴 제도 및 소양에 관하여 매일 업무 시작 전 상시시킴으로써 KOEM인의 청렴의식 제고 및 투명하고 청렴한 Clean KOEM 구현
청렴의식 증진 개방형 청렴 시스템	• 청렴윤리 감성메세지, 카드뉴스 등을 포함한 영상 학습 콘텐츠와 청렴콘텐츠 공모전과 같은 참여형 커뮤니티 운영
윤리경영 수준진단	• 공단 윤리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윤리의식 변동추이 진단·개선(윤리경영 인식·참여도, 리스크 관리, 경영총 리더십 등)
청렴멘토링	• 감사처·신입직원 간 청렴소통을 통해 신입직원이 입사 초기에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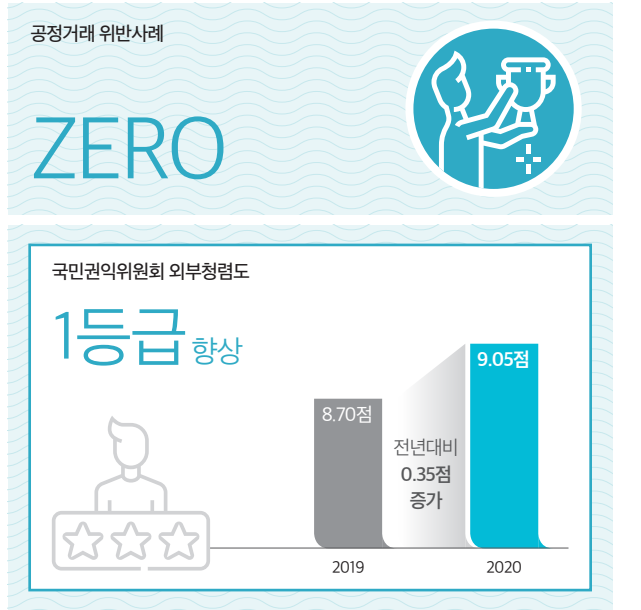
환류시스템 실효성 확보

내부 윤리경영 수준진단 지표(KOEM-BEX)를 기반으로 내면 내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공단 윤리경영 추진체계 취약점 도출에 용이하도록 수준진단 지표를 개인윤리지수와 조직 윤리지수로 구분하여 설계하였으며, 권익위 청렴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와 같은 외부평가 지표 항목과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 갑질 설문조사, 갑질 근절을 위한 심층 인터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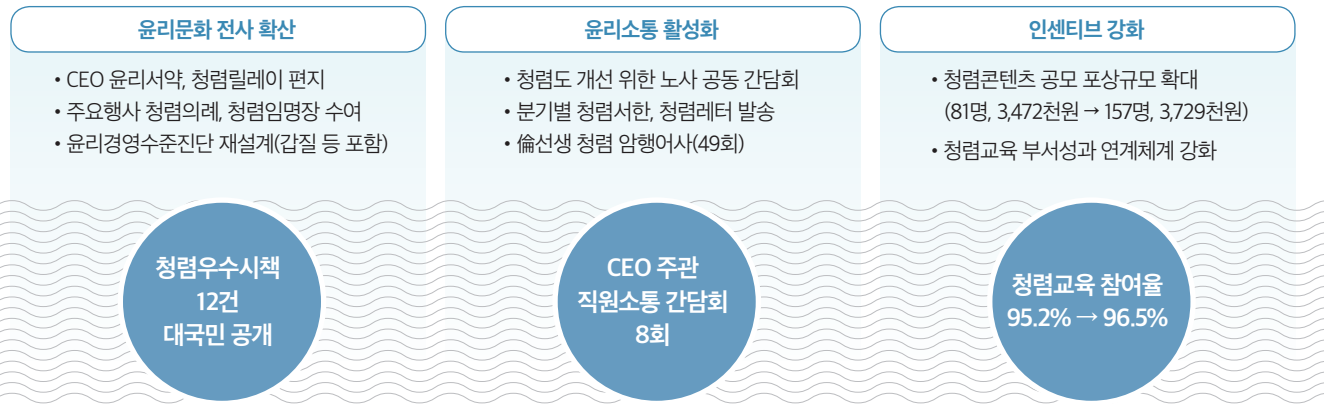
KOEM 청렴문화 조성

해양환경공단은 경영진이 앞장서고 전 직원이 동참하며 이해 관계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CEO 윤리서약, 청렴릴레이 편지, 주요행사 청렴의례 등 경영진 윤리 리더십 발휘로 준법·윤리경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간담회, 분기별 청렴서한, 청렴 암행어사 등 기관장 주관 직원소통 간담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감형 청렴교육을 시행함은 물론,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 윤리의 날 행사, 반부패 청렴주간 운영 등 전 직원이 참여가능한 청렴콘텐츠 운영으로 자발적인 청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신규 행위기준 조기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해충돌방지 서약, 청렴 퀴즈 등을 운영하며 전 임직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청렴교육 15,224시간을 이수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6% 상승한 수치입니다.

KOEM-BEX 진단모델



경영진 윤리리더십 발휘로 준법·윤리경영 추진 가속화



내부제재시스템 고도화

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감사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내부제재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혁신·선진감사, 공정·신뢰감사, 사회적 책무 감사라는 3대 감사방침 아래 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있습니다. 감사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의 감사참여 및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고채널 KOEM신문고를

신설하여 신고자 편의성을 더욱 제고하였고, 입찰공고문, 청렴레터, 메일서명 등 이해관계자 대상 신고채널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익명신고처리 매뉴얼 제작 및 모의신고훈련과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병행한 결과, 2020년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감사비전	공정으로 신뢰받고 소통으로 공감하는 CARE 감사			
감사방침	혁신·선진감사	공정·신뢰감사	사회적 책무 감사	
전략방향	감사역량제고 기반 확립	선진감사체계 구축	사회적 책무 지원 강화	소통·신뢰 감사문화 정착
전략과제 (12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 인프라 확대 기반 조성 역량기반 교육체계 조성 감사 전문지식 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감사 기능 강화 시스템 감사 체계 확립 취약분야 내부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활동 윤리성 강화 사회적 책무 위반 관리 강화 반부패·청렴지원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 수용성 제고 수요자 중심 소통·공유 확대 감사 품질 신뢰도 향상
실행과제 (33개)	감사인 역량기반 교육 확대, 타기관 협력강화 등 8개	리스크 기반 감사체계 강화, 재발방지체계 구축 등 9개	감사인 윤리성 제고, 방만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등 8개	내부감사 품질평가기반 확립, 준감사인 제도 구축 등 8개

사업추진 객관성·투명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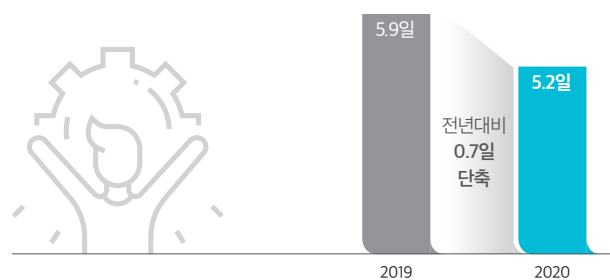
공단은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청렴시민 감사관, 이사회, 대학생 홍보대사 등 외부 전문가와 국민 참여를 확대시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특혜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하도급 감독관 선임, 직불 조건부 발주 확대,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담파트를 신설하였으며, 면접위원 제척제도 도입, 탈락자 이의신청 기간 도입 등 채용공고에서 합격자 공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별 리스크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사부문에서는 인사시기 청렴경보를 발령하여 인사 영향력이 있는 부서 및 소속기관장을 대상으로 금품·향응·편의 등 인사 관련 부패·비위 행위를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공단은 비공개 문서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기한을 100%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정보공개 점검단을 운영하며 정보처리 소요일수를 기존 5.9일에서 5.2일로 0.7일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해양환경정보포털 서비스 개시, 해양수산부문 국가 온실가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수요를 분석하여 국민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으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평가와 공공데이터 수준평가에서 각각 우수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정보처리 소요일수



모두가 안심하는 리스크 관리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 강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실무자 협의회를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사육이 폐쇄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 전 출입자를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으며, 공용 공간 소독 강화, 구역별 손소독제 비치 등을 통해 감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업무 수요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시대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원격근무 확대 등으로 비대면 업무 인프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업무 수행으로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무 리스크 유형 분석 및 시스템 고도화

해양환경공단은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무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공단의

지역사회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자 대한적십자사에 자가격리 구호물품 키트를 제작하여 기증하였으며, 장애인 생활 가정을 대상으로는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여 양식수산물을 지역아동센터 돌봄 아동 약 550명에게 기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에 분포된 소속기관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진입이 곤란해 방역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각지대에 드론을 활용하여 공익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 재무리스크 관리



재무 건전성 제고

공단은 체계적인 유동성 관리 및 부채 최소화를 통해 재무 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단은 금융 부채·비금융 부채로 구분, 특성에 따라 부채 유형을 세분화한 뒤, 이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실행하여 전년대비 총부채 76억 원 감소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과 출자를 배제한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8년 연속 최상위 신용평가 등급(AAA) 유지에 성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시중 우량은행 제안금리를 통한 정기예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자 수익 증진을 추구하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무현황 (단위:%)

구분	2018	2019	2020	2020년 공기업 평균
부채비율	23.02	23.59	21.27	182.3
유동비율	383.9	329.95	273.73	128.2
이자보상비율	0	0	145.6	145.6

APPENDIX



74
ESG Data Center
80
제 3자 검증의견서
82
GRI Standards Index
84
수상 및 인증실적
86
가입단체 현황 및 UNGC 10대 원칙
87
독자 설문지

ESG Data Center

환경적 성과

16,258		단위	2018	2019	2020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tCO2e	252.62	263.77	302.18
Scope 2		tCO2e	924.37	698.91	1030.06
합계		tCO2e	1,176.99	962.68	1332.24
온실가스 집약도					
매출액		십억 원	112	123	127
Scope 1		tCO2e/십억 원	2.2	2.1	2.4
Scope 2		tCO2e/십억 원	8.2	5.7	8.1
조직 내외부 에너지 소비					
내부	가스(LNG)	TJ	0.12	0.47	0.41
	실내등유	TJ	0.24	0.22	0.19
	전력	TJ	19.03	14.12	21.21
	합계	TJ	19.39	14.81	21.81
외부	휘발유 사용	TJ	0.21	0.19	0.14
	디젤 사용	TJ	3.08	3.02	2.80
	합계	TJ	3.29	3.21	2.94
용수사용량					
연간 총 용수 사용량		ton	6,291	6,379	6,056
환경 투자					
방제사업		백만원	23,922	27,212	25,783
청향폐유사업		백만원	13,664	14,569	16,258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백만원	6,892	7,655	11,796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백만원	14,607	15,241	12,457
해양환경관리사업		백만원	4,666	22,654	21,474
해양환경 기초 조사사업		백만원	25,868	26,288	24,024
합계		백만원	89,619	113,619	111,792

사회적 성과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인력 현황					
성별	남성	명	562	576	564
	여성	명	110	110	114
고용계약	임원	명	4	4	4
	정규직	명	668	682	674
	비정규직	명	7	4	17
직급(정규직)	임원	명	4	4	4
	일반직1급	명	13	15	16
	일반직2급	명	22	22	23
	일반직3급	명	40	40	39
	일반직4급	명	56	55	58
	일반직5급	명	87	91	96
	일반직6급	명	49	50	47
	일반직7급	명	8	6	6
	기술직	명	347	352	335
	별정직	명	3	3	3
	공무직	명	0	48	51
연령(정규직)	35세 미만	명	189	208	197
	35~50세	명	339	341	313
	50세 초과	명	144	137	168
소수자(정규직)	장애인	명	12(1.8%)	10(1.4%)	12(1.8%)
	국가보훈자	명	22	27	29
정규직 신규 채용 현황					
여성		명	10	0	3
장애인		명	0	0	2
비수도권 지역인재		명	36	29	12
고졸자		명	6	5	2
총 신규채용		명	52	34	19

인력개발 현황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총 교육시간		시간	132,339	150,213	148,359
1인당 교육 집행비용		천 원/명	1,304	1,148	1,038
교육 만족도		점	97.8	94.8	95.9
유연근무제 현황					
시간선택제	채용	명	3	2	4
	전환	명	1	2	2
육아휴직 사용 현황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직원의 총 수	남성	명	2	3	15
	여성	명	4	3	8
육아휴직이 끝난 후 업무에 복귀한 임직원의 총 수	남성	명	1	5	6
	여성	명	3	5	2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12개월간 근무한 임직원 총 수	남성	명	1	4	5
	여성	명	2	4	2
육아휴직 복귀율	남성	%	100	100	100
	여성	%	100	100	100
복귀 후 유지율	남성	%	100	100	100
	여성	%	100	100	100
노동조합 가입 현황					
전체 근로자 수		명	668	682	674
가입 인원		명	508	534	540
가입 비율		%	76.0	78.3	80.1
윤리경영 현황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청렴도	등급	4	3	3
	외부청렴도	점	8.46	8.70	9.05
	내부청렴도	점	7.75	7.48	7.44
과정별 청렴 교육 운영	(집합) CEO 청렴특강	회	3	4	0
		명	169	89	0
		시간	161	158	0

과정별 청렴 교육 운영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과정별 청렴 교육 운영	(집합) 감사실 주관 청렴 교육	회	52	50	74
		명	1,157	1,154	762
		시간	2,169	2,019	1,458
	(집합) 부서장 주관 청렴 교육	회	481	136	73
		명	3,411	2,326	513
		시간	4,252	2,806	915
	(집합) 외부전문기관 청렴 교육	회	9	6	8
		명	14	9	10
		시간	121	88	132
	사이버 청렴 과정	회	14	10	14
		명	419	810	1,074
		시간	2,732	6,974	9,959
반부패 교육	교육횟수	회	559	206	169
	교육이수자	명	5,170	4,388	2,359
	교육시간	시간	9,435	12,045	12,464
지역사회 현황					
민간일자리창출	명		2,511	2,561	2,625
직원 1인당 봉사시간	시간/명		30	30	32
동반성장					
우선구매 실적	백만 원		63,354	58,318	61,084
조직의 공급망	협력사 수		70	88	150

지배구조-경제 성과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이사회 운영성과	이사회 개최횟수	회	13	13	13
	안건수	건	57	71	72
	사외이사 비율	%	56	56	56
	이사회 참석률	%	100	100	100
이사회 보수총액	등기이사	백만원	819	807	929
	사외이사	백만원	150	150	150
	사내이사	백만원	669	657	779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백만 원	80,795	74,692	66,034
	비유동자산	백만 원	140,424	147,470	152,291
	자산총계	백만 원	221,219	222,162	218,325
부채	유동부채	백만 원	21,046	22,637	24,124
	비유동부채	백만 원	20,343	19,762	14,172
	부채총계	백만 원	41,389	42,399	38,296
자본	납입자본	백만 원	74,152	74,152	74,152
	이익잉여금	백만 원	111,702	111,455	111,951
	기타자본구성요소	백만 원	(6,024)	(5,844)	(6,073)
	자본총계	백만 원	179,830	179,763	180,030
포괄손익계산서와 주요지표					
수익(매출액)		백만 원	111,873	122,606	126,923
매출원가		백만 원	99,369	107,840	113,199
판매비와 관리비		백만 원	21,329	18,873	17,422
영업이익(손실)		백만 원	(8,825)	(4,107)	(3,699)
기타수익		백만 원	66	2,861	2,555
기타비용		백만 원	602	251	272
기타이익(손실)		백만 원	1,623	472	1,009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금융수익(비용)		백만 원	647	420	330
관계기업관련이익		백만 원	812	334	28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백만 원	(6,280)	(270)	(106)
법인세비용(수익)		백만 원	(452)	(23)	(601)
당기순이익(손실)		백만 원	(5,828)	(247)	495
기타포괄손익		백만 원	(154)	180	(229)
총포괄손익		백만 원	(5,982)	(67)	267
매출액순이익률		백만 원	(5.21)	(0.2)	0.39
자기자본회전률		백만 원	62.21	68.2	70.5
경제적 가치 배분					
임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백만 원	40,880	42,957	45,477
정부	세금 및 공과	백만 원	565	2,288	3,637
지역사회	기부금, 사회공헌 활동 비용	백만 원	45	31	67

제 3자 검증의견서

2020/2021 해양환경공단 ESG경영보고서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2020/2021 해양환경공단 ESG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의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해양환경공단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해양환경공단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2008) 및 KMR 글로벌경영위원회의 SRV100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Moderate Level의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및 대응성(Responsiveness) 원칙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검증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기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GRI Standards 보고 원칙
-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 특정주제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하기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201-1, 201-2, 201-3
 - 시장지위(Market Presence): 202-2
 - 간접경제효과(Indirect Economic Impacts): 203-1, 203-2
 - 조달관행(Procurement Practices): 204-1
 - 반부패(Anti-Corruption): 205-1, 205-2, 205-3
 - 경쟁저해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206-1
 - 원재료(Materials): 301-1

- 에너지(Energy): 302-1, 302-4, 302-5
- 용수(Water and Effluents): 303-1
- 온실가스(GHG Emissions): 305-1, 305-2
- 환경법규 준수(Environmental Compliance): 307-1
- 고용(Employment): 401-1, 401-2, 401-3
- 노사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402-1
-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2
-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404-1, 404-2, 404-3
- 다양성과 기회균등(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1, 405-2
-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406-1
- 아동노동(Child Labor): 408-1
-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r): 409-1
-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412-1, 412-2
-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413-1, 413-2
- 공공정책(Public Policy): 415-1
- 마케팅 및 라벨링(Marketing and Labeling): 417-1, 417-2, 417-3
- 고객개인정보보호(Customer Privacy): 418-1
-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Socioeconomic Compliance): 419-1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해양환경공단의 협력회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증절차

한국경영인증원의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중대성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
-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목표에 대한 검토
-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에 대한 검토
-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공단과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본 검증팀은 해양환경공단의 ESG경영보고서에서 아래 기재된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검증 범위에 포함된 상기 데이터가 적절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성

포괄성이란 지속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성

중요성이란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어떤 이슈가 갖는 관련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이슈란 조직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행동 및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말합니다. 해양환경공단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파악된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대응성이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활동 및 성과를 통해 실현됩니다. 검증팀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해서 해양환경공단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검증팀은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경영인증원은 해양환경공단이 발간한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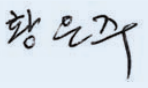
해양환경공단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토픽을 ESG 경영 등의 4가지 카테고리로 재구성하고 Q&A 형태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고한 점이 돋보입니다. 향후, 지속가능경영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장기 전략에 따른 핵심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길 권고 드립니다.

검증의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해양환경공단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11.26



대표이사 

GRI Standards Index

Universal Standard

지표		설명	페이지
조직 프로필	102-1	기업의 이름	10-11
	102-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0-19
	102-3	본사의 위치	10-11
	102-4	사업 지역	10-11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10-11
	102-6	시장 영역	10-19
	102-7	조직의 규모	10-11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56-57, 75-76
	102-9	조직의 공급망	10-19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10-19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1	67-71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86
	102-13	협회 멤버십	86
전략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4-5
	102-15	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4-5
윤리성 및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67-70
	102-17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67-70
거버넌스	102-18	지배구조	65-66, 78-79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산하 위원회의 구성	65-66, 78-79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	65-66, 78-79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추천 및 선정	65-66, 78-79
	102-28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65-66, 78-79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24-27
	102-41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56-57, 76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24-27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24-27
보고서 관행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24-31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10-11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2, 30-31
	102-47	주요 토픽 리스트	30-31
	102-48	이전 보고서 정보의 수정	2
	102-49	보고의 변화	2
	102-50	보고 기간	2
	102-51	가장 최근 보고 일자	2
	102-52	보고 주기	2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2
	102-54	조직이 선택한 ‘부합’ 방법 보고	2
	102-55	선택 방법에 대한 GRI 인덱스	2
	102-56	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은 경우 외부 검증보고서 참조 기입	2, 80-81
경영 접근법	103-1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2, 30-31
	103-2	경영 접근법과 그 구성 요소	30-31, 34, 46, 64

Topic-Specific Standards

지표		설명	페이지
경제적 성과 (GRI 200)			
반부패	205-1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67-70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경쟁저해행위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환경적 성과(GRI 300)			
에너지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량	74
	302-2	조직 외부 에너지 소비량	
	302-3	에너지 집약도	
	302-4	에너지 소비 절감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용수	303-1	공급원별 취수량	
	303-2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303-3	용수 재활용 및 재사용	
대기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305-6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	
	305-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 배출물	
사회적 성과(GRI 400)			
고용	401-1	신규채용 및 이직	52-55, 75-77
	401-2	비정규직에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대상의 보상	52-57, 75-77
	401-3	육아휴직	57, 75-77
노동안전보건	403-1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회 보유여부와 노동자 대표 참가	56, 75-77
	403-2	업무상 재해·질병 유형,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율, 업무 관련 사망자 수	75-77
	403-3	업무상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	48-50, 75-77
	403-4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안전보건 사항	48-50, 75-77
교육 및 연수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56-57, 75-77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56-57, 75-77
	404-3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리뷰를 받은 임직원 비율	56-57, 75-77
다양성과 기회의 균등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의 다양성	65-66, 75-77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상 비율	75-77
비차별	406-1	차별 사건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58-60, 75-77
인권평가	412-1	인권 영향평가 혹은 인권 검토 대상 사업장	58-60, 75-77
	412-2	기업의 인권방침이나 절차에 대한 임직원 교육 48-49	58-60, 75-77
	412-3	인권 조항 또는 인권 심사 시행을 포함한 주요 투자 협약과 계약	58-60, 75-77

수상 및 인증실적

2020/2021



2020.2.17

美 LACP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경영 부문 금상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강화 및 지속가능경영 확산



2020.9.2

인터넷 에코어워드 2020 공공정보분야 대상
SNS 기반의 적극적인 해양환경정보 제공으로
국민소통 기여



2020.9.10

해양경찰의 날 국무총리 표창
구난작업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 기여



2020.9.23

해양오염 대응 분야 해양경찰청장상
스마트 방제 역량 확보 및 주민자치형
방제대응 역량 강화



2020.11.24

일하는 문화 혁신 공모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형성 기여



2020.12.7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공단 본사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 경영체계에 대한
대외 인증 기여



2020.12.20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2년 연속)
이해관계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기여



2021.5.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갱신 인증
KOSHA-MS 기준에 따른 전환심사 결과 적합 판정



2021.6.10

제1회 공공부문 대한민국 ESG경영대상
특별상
해양수산부문 탄소중립, 해양폐기물 저감 기여



2021.7.29

해양수산 정보서비스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해수부장관상
해양수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사업 모델 발굴 기여



2021.8.3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위험성 평가 인정 기준 적합



2021.9.1

안전산업박람회 안전혁신제품 장려상
전기 구동식 해상 유출 회수장비(KOSED) 혁신성 인증



2021.9.3

독서문화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활동 지원 유공



2021.11.4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임직원 독서문화 조성



2021.11.25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 여가부장관상
예방교육을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기여



2021.11.26

2021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3년 연속)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 실시



2021.12.1

2021년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업부장관상
탄소중립 기반 구축, 해양환경오염원 저감 기여



2021.12.3

지역사회공헌 보건복지부장관상
지역사회공헌 인성기업으로 성과 포상

가입단체 현황 및 UNGC 10대 원칙

가입단체 현황

연번	가입연도	협회 또는 단체 명	연번	가입연도	협회 또는 단체 명
1	1997	대한민국해양연맹	12	2012	부산항발전협의회
2	2001	한국수산회	13	2013	UN Global Compact
3	2006	해양환경안전학회	14	2013	한국항만협회
4	2007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5	2014	한국해양구조협회
5	2008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16	2015	한국수산업총연합회
6	2009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17	2016	에코포트포럼
7	2010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18	2016	바다녹화운동본부
8	2011	한국해양산업협회	19	2016	한국연안협회
9	2011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20	2016	한국윤리경영학회
10	2011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21	2018	한국인사행정학회
11	2012	한국해양재단	22	2020	한국행정학회

UNGCC 10대 원칙

해양환경공단은 2012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한 이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대 원칙을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	원칙	보고 내용	보고 페이지
인권 (Human Rights)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인권경영	58-60
	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인재경영 : 우수인재 확보 인권경영	58-60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에 대한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인재경영: 소통 중심의 노사문화	56-60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해야 한다.	인권경영	58-60
	5. 기업은 아동 노동을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인권경영	58-60
	6. 기업은 고용 및 직업 측면에서의 차별을 배제해야 한다.	인재경영: 우수인재 확보	56-60
환경 (Environment)	7. 기업은 환경적 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해양환경 보전 해양오염 방제 환경성과	34-45
	8. 기업은 더 큰 환경적 책임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환경 보전 해양오염 방제 환경성과	34-45
	9. 기업은 친환경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	해양오염 방제	34-45
반부패 (Anti-Corruption)	10. 기업은 횡령, 뇌물 수수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윤리경영	67-70

독자 설문지

해양환경공단의 ESG경영보고서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양환경공단은 향후 보다 나은 ESG경영보고서 제작을 위해 ESG경영보고서에 대해 독자 여러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을 작성하시어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그룹에 속하십니까?

- ☐ 고객
- ☐ 임직원
- ☐ 정부
- ☐ 지역주민
- ☐ 사업파트너
- ☐ NGO 및 시민단체
- ☐ 전문기관
- ☐ 기타()

2. 귀하는 본 보고서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 ☐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
- ☐ 신문 등 언론매체
- ☐ 웹서핑
- ☐ 해양환경공단 임직원
- ☐ 세미나/강의
- ☐ 기타()

3. 귀하는 본 보고서를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 ☐ 해양환경공단의 ESG경영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 ☐ 해양환경공단 사업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 ☐ 연구 및 교육 활용의 목적으로
- ☐ 기타()

4. 다음 중 본 보고서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 해양환경공단 소개 및 ESG 경영전략
- ☐ 깨끗한 바다
- ☐ 상생의 바다
- ☐ 풍요로운 바다

5. 본 보고서는 귀하가 해양환경공단의 ESG경영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 매우 도움됨
- ☐ 도움됨
- ☐ 보통
- ☐ 도움안됨
- ☐ 전혀 도움안됨

6. 본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 정보의 이해도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정보의 정확성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정보의 양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디자인 구성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7. 해양환경공단의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보내실 곳

(05718)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ESG경영처

Tel | 02-3498-8753

E-Mail | mhpark@koem.or.kr

지난 보고서



2012



2013



2014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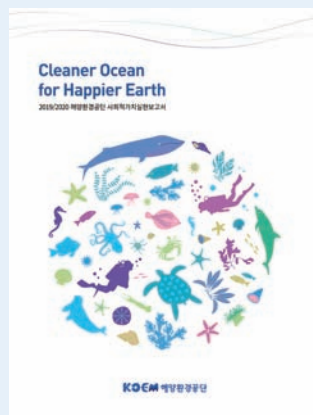
2016



2017/2018



2018/2019



2019/2020